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

-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분석

< 목 차 >

I . 분석배경과 내용	1
II .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율	2
III .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44

2019. 12.

발행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주소 0725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5, 3층

전화 02-312-7488

팩스 02-312-1638

웹사이트 <http://www.workingvoice.net/>

이메일 kcwc@kcwn.org

발행일 2019년 12월 10일

발행인 조돈문, 최병모, 임성규

편집인 이남신

목 차

I. 분석배경과 내용	1
II.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율	2
1. 전체 비정규직	2
2. 고용형태별 특징	5
3. 성별 특징	14
4. 연령대별 특징	19
5. 학력별 특징	24
6. 산업별 특징	27
7. 직업별 특징	36
8. 기업규모별 특징	40
III.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44
1. 임금	44
2. 노동시간	49
3. 근속기간	52
4. 사회보험과 부가급부	55
5. 노동조합 조직률	60
6. 기타 노동조건	62
부록: 분석개요	66

<요 약>

1. 2019년 8월 비정규직 규모는 853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35만 6천 명(4.3%) 증가했다.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41.5%로 0.7%p 증가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최근 2년 연속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돌아섰고,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2.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51만 8천 명, 26.0%)와 임시파트타임(25만 5천 명, 13.2%)이 대폭 증가했고,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반임시직(▽44만 1천 명, ▽22.7%)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3. 통계청은 비정규직 규모가 86만 7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본 센터 추산 35만 6천 명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이러한 차이의 주된 이유는 통계청이 본 센터와 달리 종사상지위에 의한 임시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그 중 상당수가 이번 조사에서 (사전 병행조사의 영향으로) 기간제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통계청은 이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으로, 본 센터는 비정규직 내의 유형 변화로 포착한다.
4. 그에 따라 정규직 역시 통계청은 35만 3천 명(-2.6%)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본 센터의 기준에 따르면 15만 8천 명(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5. 개인도급은 2만 1천 명(4.2%), 파견·용역은 1만 2천 명(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실제 증가 폭은 그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 경찰 부가조사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임금노동 이외 종속적 고용형태(플랫폼 노동 등)와 사내하청·자회사 등을 통한 우회적 고용 규모는 조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6. 성별로는 남성(25만 2천 명, 5.5%)이 여성(15만 4천 명, 3.4%)보다 많이 증가했고,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22만 2천 명, 11.7%)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10만 4천 명, 12.2%), 교육서비스(8만 1천 명, 13.3%), 제조업(7만 4천 명, 10.6%), 공공·행정·국방(4만 6천 명, 13.9%)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7.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71만 원, 시간당 임금은 11,354원이다. 정규직 대비 비율은 월평균 임금이 51.8%로 1.2%p 증가했고, 시간당 임금이 62.9%로 3.6%p 증가했다. 주당 노동시간은 비정규직(▽1.4)이 정규직(▽0.1)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정규직이 0.3%p 감소했고, 비정규직이 0.4%p 증가했다.
8.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인구구조변화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에도 전체 임금노동자가 50만 명 이상, 정규직이 15만 명 이상 증가하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과 노조 가입률이 소폭이나마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노동조건·불평등 개선 성과가 여전히 전반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비정규직 고용이 정

규직보다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늘면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현 정부의 임기도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 노동 존중 사회, 소득주도성장 등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기조 재정립과 추진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민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불공정 하도급·프랜차이즈 구조개선,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확대 등의 개혁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통계청 발표 비정규직 규모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상당수 비정규직이 공식 통계에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다.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통계청이 발표한 748만 명뿐 아니라 본 센터 발표 856만 명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다양한 비전형 고용형태(간접고용·특수고용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I. 분석배경과 내용

통계청은 2001년부터 매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고용형태 범위와 유형을 둘러싸고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정부 사이의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비정규직 고용형태 분류원칙을 정한 후 2001년 8월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각 고용형태별 규모와 노동조건을 분석한 결과를 매년 통계자료집 형식으로 발간해 왔다. 본 보고서는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것으로서 기존 보고서와 동일한 고용형태 분류원칙을 적용해 일관성을 유지했다.

분석 결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갖는 근본적 한계를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특수고용 노동자의 규모가 실제보다 매우 작게 추정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수고용 노동자는 정부 용역보고서를 보더라도 115만 명, 국가인권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2016)의 조사에 의하면 2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특수고용노동자의 수가 2019년 8월 기준 50만 명 미만이며 규모와 비율 역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특수고

용 노동자의 상당수가 임금노동자가 아닌 자영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둘째, 간접고용 노동자의 규모도 과소 추정된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사내하청 여부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노동자의 상당수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정규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조업과 대기업의 비정규직 규모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제활동조사 자료 자체의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현실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비정규직 조사 방식이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II.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율

1. 전체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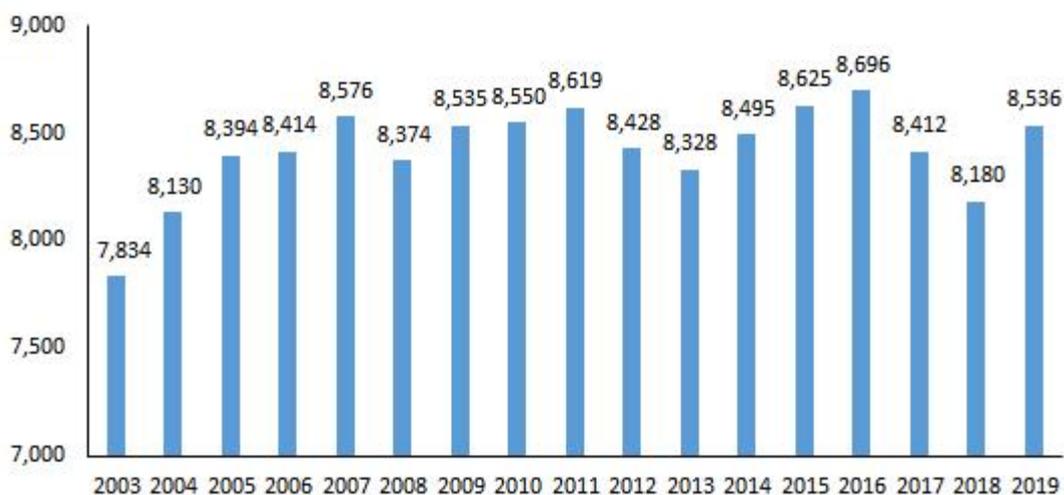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019년 8월 현재 853만 6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5만 6천명(4.3%) 늘어난 규모이다. 전체 임금노동자는 전년 동월 대비 51만 4천명(2.5%) 늘어나 2,055만 9천명으로 증가했고, 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기간 15만 8천명(1.3%) 늘어나 1,202만 2천명으로 증가했다. 비정규직 증가폭이 정규직 증가폭을 상회하면서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0.8%에서 41.5%로 상승했다.

2017년 이래 비정규노동자의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였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늘어났지만 2017년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섰다가 2019년 통계에서 다시 증가했다.

본 센터와 달리 통계청은 비정규직 규모가 86만 7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본 센터 추산 35만 6천 명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이러한 차이의 주된 이유는 통계청이 종사상지위에 의한 임시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그 중 상당수가 이번 조사에서 (사전 병행조사의 영향으로) 기간제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통계청은 이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으로, 본 센터는 비정규직 내의 유형 변화로 포착한다.

<그림 1> 비정규직 규모 추이(2003~2019, 단위: 천 명)



〈표 1〉 고용형태별 규모: 지난해와의 비교 (단위: 천 명, %)

구분	고용형태	2018.8 (A)	2019.8 (B)	증감 (C=B-A)	증감률 (100*C/ A)	
임금노동자 전체		20,045	20,559	514	2.6	
정규직 여부	정규직	11,865	12,023	158	1.3	
	비정규직	8,180	8,536	356	4.3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1,943	1,502	-441	-22.7
		기간제	1,992	2,509	518	26.0
	단시간	상용파트	250	300	50	19.9
		임시파트	1,925	2,180	255	13.2
	간접고용	호출노동	728	676	-52	-7.1
		용역노동	596	615	20	3.3
		파견노동	189	182	-7	-3.7
	특수고용	개인도급	505	526	21	4.2
		재택노동	53	46	-7	-13.8

〈표 2〉 고용형태별 비율: 지난해와의 비교 (단위: %, %p)

구분	고용형태	2018.8 (A)	2019.8 (B)	증감률 (C=B-A)	
임금노동자 전체		100.0	100.0	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59.2	58.5	-0.7	
	비정규직	40.8	41.5	0.7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9.7	7.3	-2.4
		기간제	9.9	12.2	2.3
	단시간	상용파트	1.2	1.5	0.2
		임시파트	9.6	10.6	1.0
	간접고용	호출노동	3.6	3.3	-0.3
		용역노동	3.0	3.0	0.0
		파견노동	0.9	0.9	-0.1
	특수고용	개인도급	2.5	2.6	0.0
		재택노동	0.3	0.2	0.0

2. 고용형태별 특징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직접고용/간접고용 여부, 상용직/임시직 여부, 전일제/시간제 여부, 독립도급 여부 등에 따라 총 4개의 중분류 형태와 9개의 소분류 형태로 구분한다. 분류원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비정규직 중분류 고용형태 중에서는 직접고용 전일제 임시직이 401만 명(19.5%)으로 가장 많고, 직접고용 시간제가 248만 명(12.1%)으로 두 번째로 많다(괄호 안은 임금노동자 대비 비중). 간접고용은 147만 명(7.2%)이며, 독립도급은 57만 명(2.8%)이다.

〈표 3〉 한국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구조(2019년 8월)

임금노동자 20,558,954 51만 3,888명 (2.6%) 증가	특수고용 571,834 1만 3,710명 (2.5%) 증가	개인도급 526,111			
		재택노동 45,723			
	종속적 노동자 19,987,120 50만 0,178명 (2.6%) 증가	간접고용 1,473,367 3만 9,257명 (2.5%) 감소	파견노동 182,245		
			용역노동 615,231		
			호출노동 675,891		
		직접고용 18,513,754 53만 9,436명 (3.0%) 증가	단시간 2,479,919 30만 4,471명 (14.0%) 증가	상용파트 299,912	
				임시파트 2,180,007	
전일제 15,798,870 23만 4,965명 (1.5%) 증가		정규직 12,022,717			
		일반임시직 1,501,624			
		기간제 2,509,494			

최근 추이를 보면, 시간제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5만 명(2.4%) 증가했지만 2019년에는 30만 4천 명(14.0%) 증가했다. 시간제 증가 규모가 30만 명을 넘은 것은 2019년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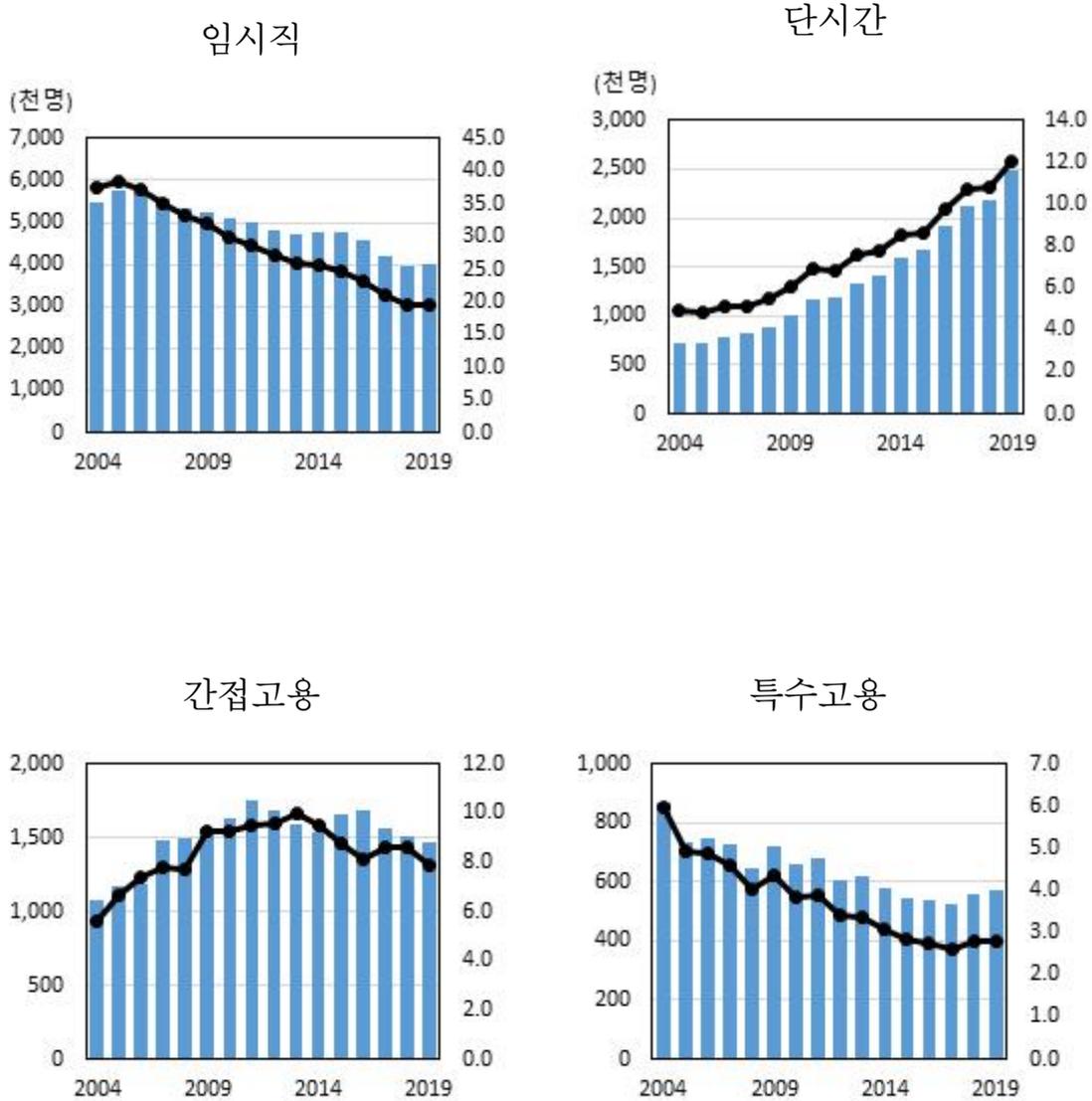
임시직은 일반임시직과 기간제를 합산한 것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뿐 아니라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으나 2019년에는 다시 늘어났다. 2018년과 비교하면, 임시직은 7만 7천 명(2.0%) 증가하였다. 일반임시직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기간제

증가율이 일반임시직의 감소율을 상회하여 전체 임시직 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간접고용은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확대되고 있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8년에는 5만 7천 명(-3.6%), 2019년에도 3만 9천명(-2.5%) 감소했다.

특수고용은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계속 규모가 줄어들다가 2018년 조사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9년에도 1만 3,710명(2.5%) 증가했다.

<그림 3> 비정규직 중분류 형태별 규모와 비율 추이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 중에서는 기간제, 임시파트타임, 일반임시직이 가장 많다. 기간제는 250만 명(12.2%), 임시파트타임은 218만 명(10.6%), 일반임시직은 150만 명(7.3%)이다. 이들 고용형태의 노동자수를 더하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72.5%를 차지한다. 나머지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호출노동 68만 명(3.3%), 용역노동 62만 명(3.0%), 개인도급 53만 명

(2.6%), 파견노동 18만 명(0.9%), 상용파트타임 30만 명(1.5%), 재택노동 5만 명(0.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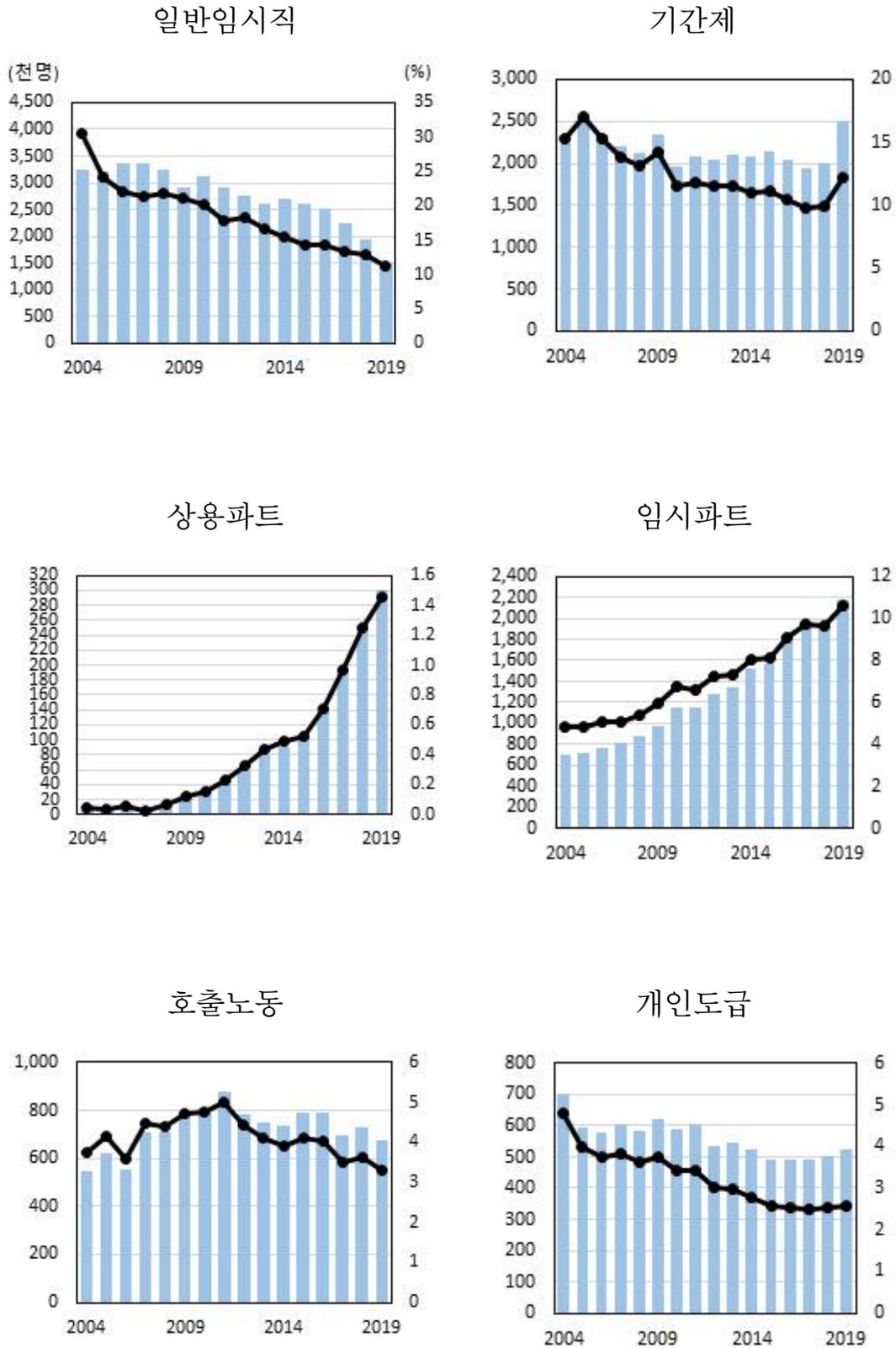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별 전년 대비 규모 변화를 보면, 우선 임시직 중에서 기간제는 51만 8천 명(26.0%) 증가했고, 일반임시직은 44만 1천 명(-22.7%) 감소했다.

단시간 중에서는 임시파트타임이 25만 5천 명(13.2%) 증가했고, 상용파트타임이 5만 명(19.9%)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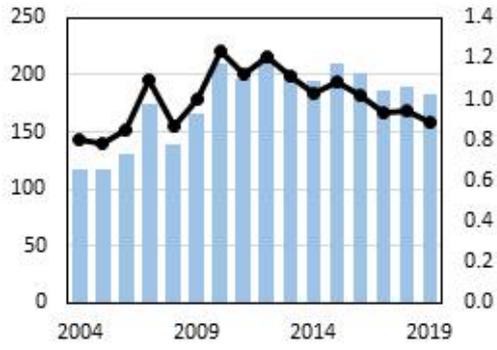
간접고용 중에서는 용역노동이 2만 명(3.3%) 증가했지만, 파견노동은 7천 명(-3.7%), 호출노동은 5만 2천 명(-7.1%) 감소했다.

특수고용 중에서는 개인도급이 2만 1천명(4.2%) 증가했고, 재택노동은 7천 명(-13.8%)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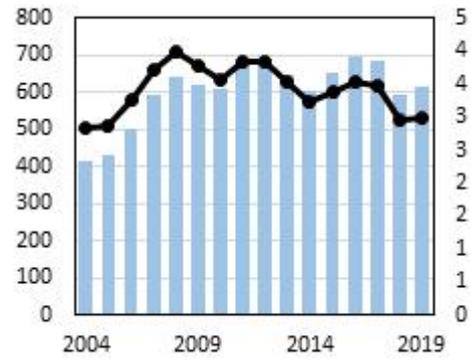
<그림 4>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추이 (2004~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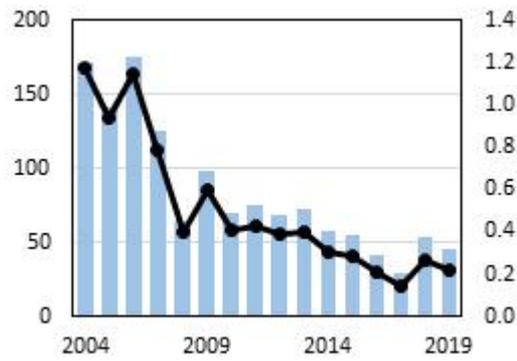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



〈표 4〉 연도별 고용형태별 규모 (단위: 천 명)

조사년	임금노동자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노동형태								
				임시직		단시간		간접고용			특수고용	
		정규직	비정규직	일반임시	기간제	상용파트	임시파트	호출노동	용역노동	파견노동	개인도급	재택노동
2001	13,540	6,066	7,474	3,839	1,352	7	575	230	307	135	773	256
2002	14,030	6,138	7,892	4,279	1,309	3	558	356	332	94	724	235
2003	14,149	6,315	7,834	3,432	2,079	5	640	502	346	98	566	166
2004	14,584	6,455	8,130	3,231	2,235	7	709	548	413	117	700	171
2005	14,968	6,574	8,394	3,206	2,556	6	718	622	431	118	596	141
2006	15,351	6,937	8,414	3,358	2,342	8	773	553	498	131	576	175
2007	15,882	7,307	8,576	3,359	2,196	4	808	710	593	174	606	125
2008	16,103	7,730	8,374	3,240	2,113	11	872	710	641	139	583	64
2009	16,479	7,944	8,535	2,922	2,334	21	975	776	622	165	621	98
2010	17,048	8,497	8,550	3,126	1,960	26	1,149	813	608	211	587	70
2011	17,510	8,891	8,619	2,922	2,073	41	1,156	880	672	197	603	75
2012	17,734	9,306	8,428	2,765	2,037	58	1,282	784	682	214	537	69
2013	18,240	9,912	8,328	2,605	2,094	79	1,336	747	646	204	545	73
2014	18,776	10,282	8,495	2,703	2,076	91	1,513	733	604	194	523	58
2015	19,312	10,687	8,625	2,595	2,149	101	1,574	792	656	210	493	55
2016	19,627	10,931	8,696	2,509	2,046	138	1,783	788	696	201	494	42
2017	19,883	11,470	8,412	2,246	1,949	193	1,932	696	688	185	493	29
2018	20,045	11,865	8,180	1,943	1,992	250	1,925	728	596	189	505	53
2019	20,559	12,023	8,536	1,502	2,509	300	2,180	676	615	182	526	46

〈표 5〉 연도별 고용형태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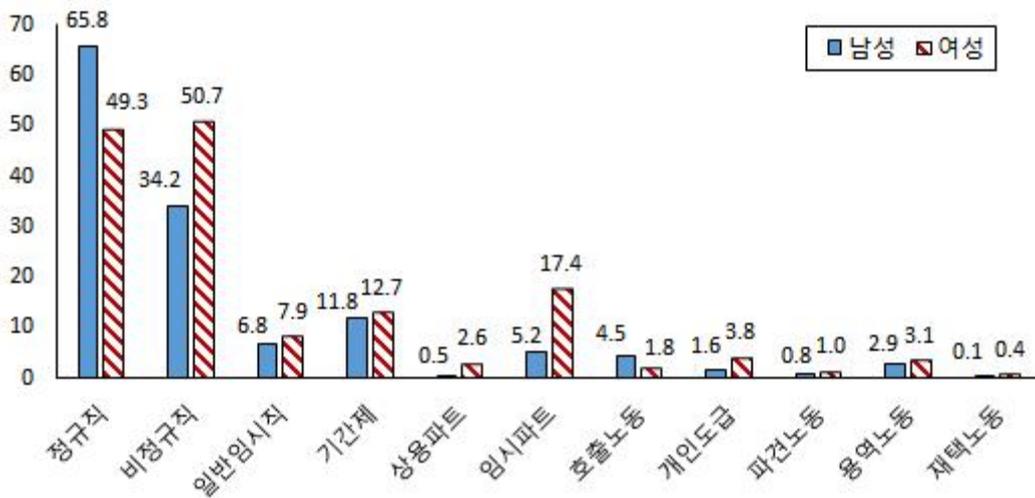
조사년	임금노동자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단시간		간접고용			특수고용	
		정규직	비정규직	일반임시	기간제	상용파트	임시파트	호출노동	용역노동	파견노동	개인도급	재택노동
2001	100.0	44.8	55.2	28.4	10.0	0.1	4.2	1.7	2.3	1.0	5.7	1.9
2002	100.0	43.8	56.2	30.5	9.3	0.0	4.0	2.5	2.4	0.7	5.2	1.7
2003	100.0	44.6	55.4	24.3	14.7	0.0	4.5	3.5	2.4	0.7	4.0	1.2
2004	100.0	44.3	55.7	22.2	15.3	0.0	4.9	3.8	2.8	0.8	4.8	1.2
2005	100.0	43.9	56.1	21.4	17.1	0.0	4.8	4.2	2.9	0.8	4.0	0.9
2006	100.0	45.2	54.8	21.9	15.3	0.1	5.0	3.6	3.2	0.9	3.8	1.1
2007	100.0	46.0	54.0	21.1	13.8	0.0	5.1	4.5	3.7	1.1	3.8	0.8
2008	100.0	48.0	52.0	20.1	13.1	0.1	5.4	4.4	4.0	0.9	3.6	0.4
2009	100.0	48.2	51.8	17.7	14.2	0.1	5.9	4.7	3.8	1.0	3.8	0.6
2010	100.0	49.8	50.2	18.3	11.5	0.2	6.7	4.8	3.6	1.2	3.4	0.4
2011	100.0	50.8	49.2	16.7	11.8	0.2	6.6	5.0	3.8	1.1	3.4	0.4
2012	100.0	52.5	47.5	15.6	11.5	0.3	7.2	4.4	3.8	1.2	3.0	0.4
2013	100.0	54.3	45.7	14.3	11.5	0.4	7.3	4.1	3.5	1.1	3.0	0.4
2014	100.0	54.8	45.2	14.4	11.1	0.5	8.1	3.9	3.2	1.0	2.8	0.3
2015	100.0	55.3	44.7	13.4	11.1	0.5	8.1	4.1	3.4	1.1	2.6	0.3
2016	100.0	55.7	44.3	12.8	10.4	0.7	9.1	4.0	3.5	1.0	2.5	0.2
2017	100.0	57.7	42.3	11.3	9.8	1.0	9.7	3.5	3.5	0.9	2.5	0.1
2018	100.0	59.2	40.8	9.7	9.9	1.2	9.6	3.6	3.0	0.9	2.5	0.3
2019	100.0	58.5	41.5	7.3	12.2	1.5	10.6	3.3	3.0	0.9	2.6	0.2

3. 성별 특징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 남성은 정규직 비율이 65.8%, 비정규직 비율이 34.2%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많다. 반면, 여성은 정규직 비율이 49.3%, 비정규직 비율이 50.7%로,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남녀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분포를 보더라도 여성은 호출노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특히, 남성은 임시파트타임 비율이 5.2%이지만, 여성은 그러한 비율이 17.4%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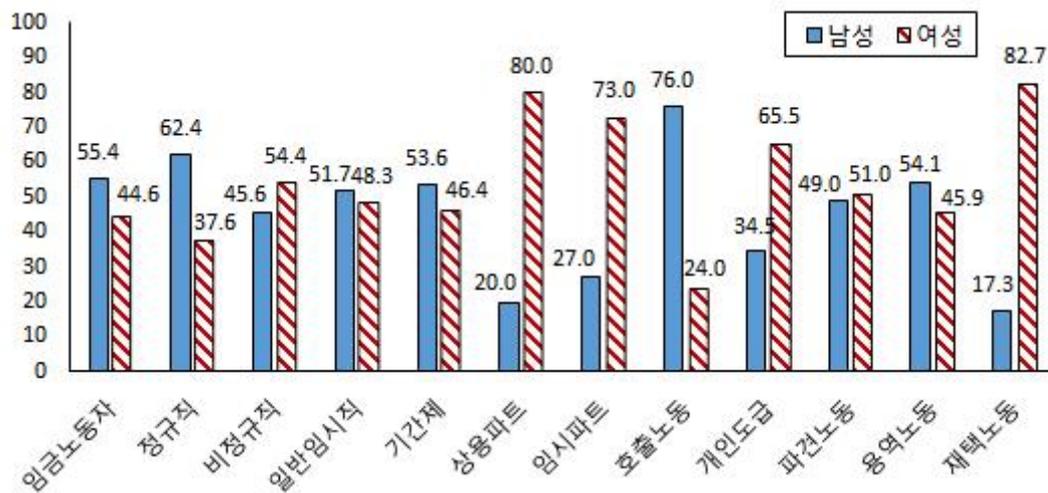
<그림 5> 성별 고용형태 비율(단위: %)



각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의 남녀 비율을 보면, 정규직은 55.4%가 남성이고 44.6%가 여성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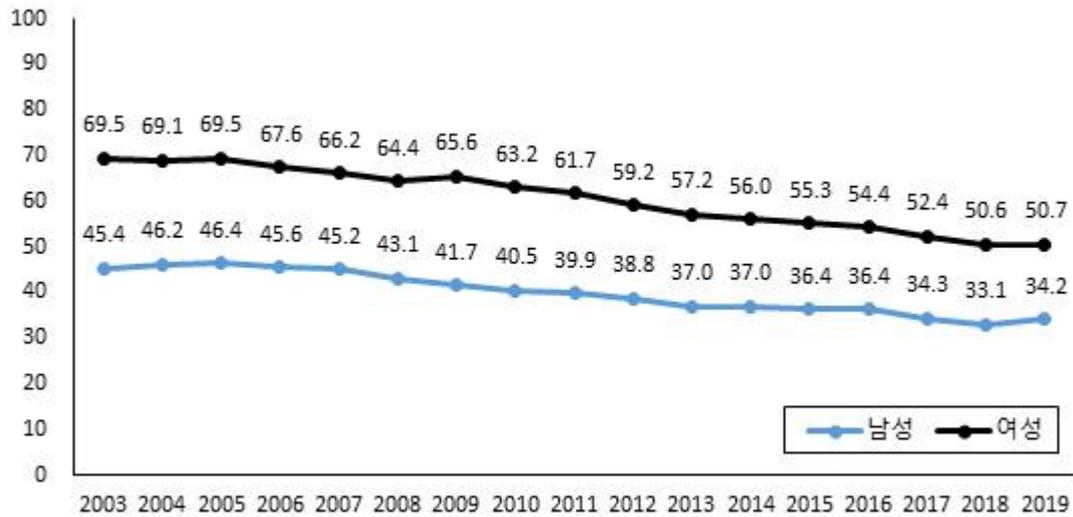
우에는 남성이 45.6%, 여성이 54.4%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별로 보면, 호출노동은 남성이 76.0%로 매우 높지만, 상용파트타임, 임시파트타임, 개인도급, 재택노동은 여성이 69%~82%로 압도적으로 높다.

〈그림 6〉 고용형태별 성별 비율



지난해와 비교하면 남성 비정규직은 20만 2천 명(5.5%), 여성 비정규직은 15만 4천 명(3.4%) 증가했다. 남성 내 비정규직 비율은 1.1%p, 여성 내 비정규직 비율은 0.1%p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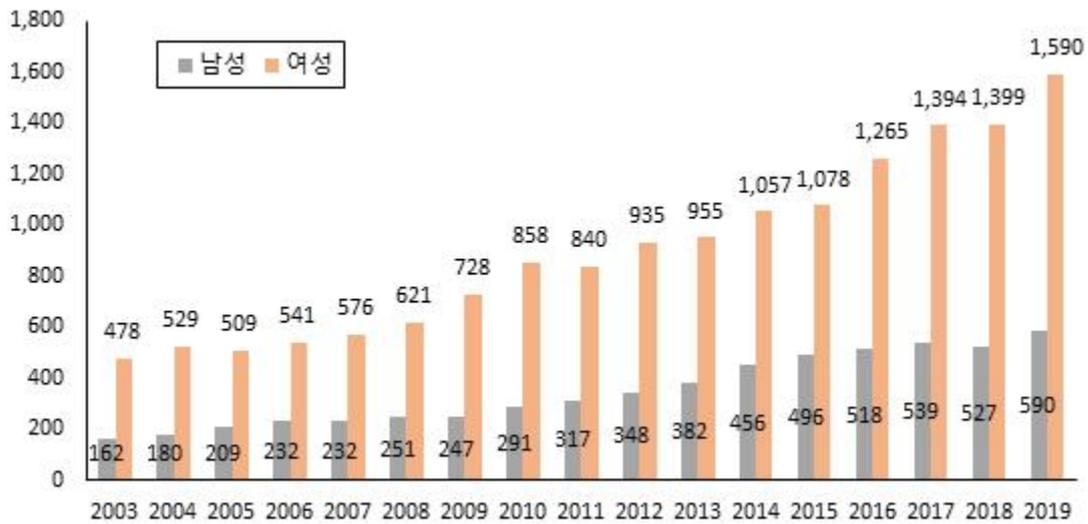
<그림 7> 성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비정규직 세부 유형별 남녀 고용 변화를 보면, 기간제는 남성이 32만 1천 명(31.4%), 여성이 19만 7천 명(20.3%) 증가해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증가했다. 일반임시직은 남성이 18만 명(-18.8%), 여성이 26만 1천 명(-26.5%) 감소해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감소했다.

시간제는 상용파트타임과 임시파트타임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증가했다. 상용파트타임은 남성이 1만 9천 명(48.8%), 여성이 3만 명(14.4%) 증가했고, 임시파트타임은 남성이 6만 3천 명(12.0%), 여성 19만 2천 명(13.7%) 증가했다.

〈그림 8〉 성별 임시파트타임 규모 추이



파견노동과 용역노동은 남성이 감소하고 여성이 증가했다. 파견노동은 남성이 8천 명(-8.3%) 감소했고, 여성이 1천 명(1.2%) 증가했으며, 용역 노동은 남성이 5천 명(-1.4%) 감소했고, 여성이 2만 4천 명(9.5%) 증가 했다. 호출노동은 남성 3만 8천 명(-7.0%), 여성 1만 3천 명(-7.7%) 등 남녀 모두 감소했다.

개인도급과 재택노동은 남성이 증가하고 여성이 감소했다. 개인도급은 남성이 2만 5천 명(15.8%) 증가했고, 여성이 4천 명(-1.1%) 감소했으며, 재택노동은 남성이 4천 명(88.3%) 증가했고, 여성이 1만 1천 명(-22.6%) 감소했다.

<표 6> 성별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단위: 천 명, %)

			남성	여성	전체	
임금노동자		규모	11,396	9,163	20,559	
		성별 내%	100.0	100.0	100.0	
		고용형태 내%	55.4	44.6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규모	7,501	4,522	12,023	
		성별 내%	65.8	49.3	58.5	
		고용형태 내%	62.4	37.6	100.0	
	비정규직	규모	3,895	4,641	8,536	
		성별 내%	34.2	50.7	41.5	
		고용형태 내%	45.6	54.4	100.0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규모	776	726	1,502
			성별 내%	6.8	7.9	7.3
			고용형태 내%	51.7	48.3	100.0
		기간제	규모	1,344	1,165	2,509
			성별 내%	11.8	12.7	12.2
			고용형태 내%	53.6	46.4	100.0
	단시간	상용파트	규모	60	240	300
			성별 내%	0.5	2.6	1.5
			고용형태 내%	20.0	80.0	100.0
		임시파트	규모	590	1,590	2,180
			성별 내%	5.2	17.4	10.6
			고용형태 내%	27.0	73.0	100.0
	간접고용	호출노동	규모	514	162	676
			성별 내%	4.5	1.8	3.3
			고용형태 내%	76.0	24.0	100.0
		용역노동	규모	333	283	615
			성별 내%	2.9	3.1	3.0
			고용형태 내%	54.1	45.9	100.0
		파견노동	규모	89	93	182
			성별 내%	0.8	1.0	0.9
			고용형태 내%	49.0	51.0	100.0
특수고용	개인도급	규모	182	344	526	
		성별 내%	1.6	3.8	2.6	
		고용형태 내%	34.5	65.5	100.0	
	재택노동	규모	8	38	46	
		성별 내%	0.1	0.4	0.2	
		고용형태 내%	17.3	82.7	100.0	

4. 연령대별 특징

각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10대는 85.9%, 60대는 72.4%, 70세 이상은 94.2%로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20대와 50대는 44.5%와 41.5%로 거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40대와 30대는 비정규직 비율이 31.1%와 26.9%이다. 이러한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다수가 30대 전후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생애 전반에 걸쳐 비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 비율도 연령대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각 연령대의 고용형태 비율을 전 연령 평균 고용형태 비율과 비교해 보면, 10대는 일반임시직, 임시파트타임, 호출노동, 파견노동, 재택노동의 비율이 20대는 일반임시직, 기간제, 임시파트타임 비율이, 40대는 개인도급의 비율이 높다. 50대는 일반임시직, 상용파트타임, 호출노동, 개인도급, 파견노동, 용역노동의 비율이 높고, 60대는 일반임시직, 기간제, 임시파트타임, 호출노동, 개인도급,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 비율이, 70대 이상은 임시파트타임, 호출노동,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의 비율이 전 연령대 평균 비율보다 높다. 30대는 전 연령대 평균 비율보다 높은 고용형태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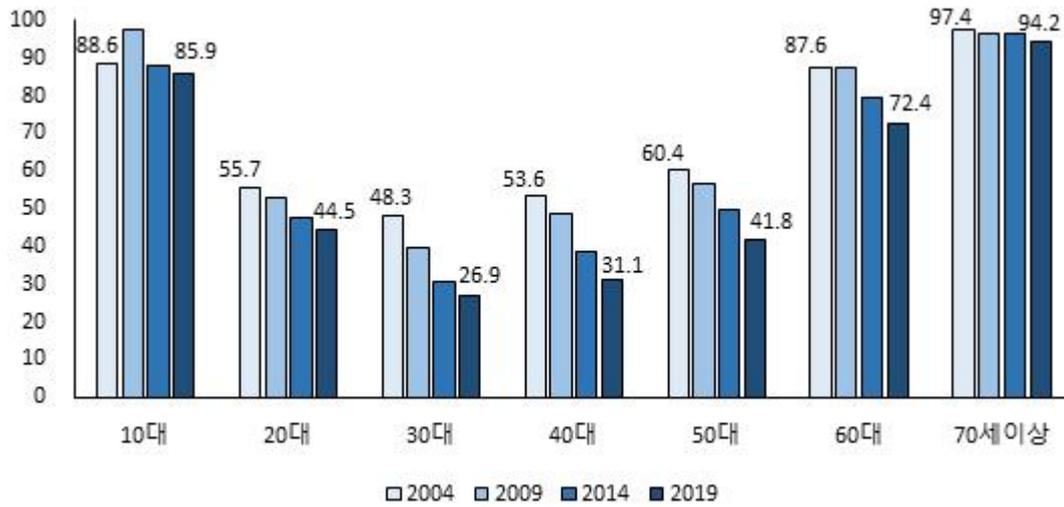
고용형태별 연령대 분포를 보더라도, 일반임시직은 20대와 40~50대에 주로 분포해 있고, 기간제는 20~50대의 비율이 가장 높다. 시간제 중에서 상용파트타임은 30~50대에 주로 분포해 있지만, 임시파트타임은 20

대와 70세 이상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호출노동은 40~60대에, 특수고용은 40~50대에, 용역노동은 50~60대에 주로 분포해 있고, 파견노동은 30대~50대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10대와 40대 비정규직은 각각 9천 명(-5.1%), 6천 명(-0.4%) 감소했고, 그 외 모든 연령대의 비정규직은 늘어났다. 특히, 60대와 70대 이상은 비정규직이 각각 13만 5천 명(10.6%)과 8만 7천 명(13.8%) 등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 30대, 50대 비정규직도 9만 명(6.1%), 3만 4천명(2.8%), 2만 4천 명(1.3%) 증가했다. 이는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비정규직이 감소했던 지난해 상황과 대조된다. 특히, 60대와 70대 이상 비정규직 규모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는데, 그중 상당분은 공공근로 등 시간제 중심 노인 일자리 정책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은 4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고, 3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감소했다. 50대와 60대가 각각 16만 3천 명(6.8%), 4만 5천 명(9.1%), 증가하여 정규직의 증가를 주도했다. 70대 이상은 8천 명(24.2%) 증가했으며, 40대는 1만 5천 명(0.4%) 증가했다. 반대로 10대는 1천 2백 명(-4.3%), 20대는 1만 3천 명(-0.6%), 30대는 6만 1천 명(-1.7%)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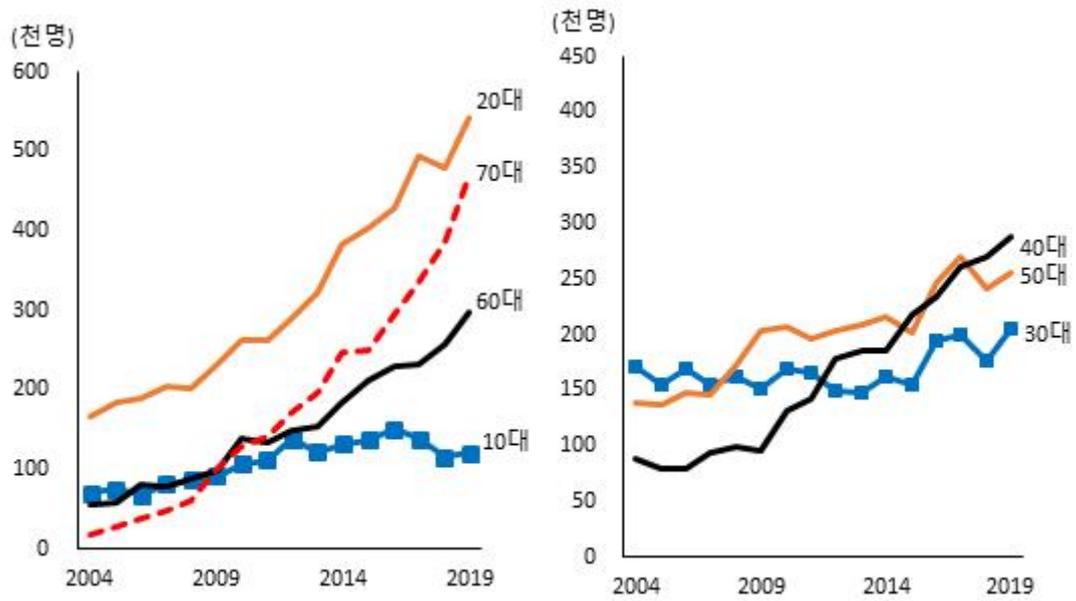
<그림 9>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최근 몇 년간 임시파트타임의 급속한 증가는 20대와 60~70대가 주도했으나, 올해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70대 이상(8만 3천 명, 21.4%)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20대(6만 4천 명, 13.4%), 50대(3만 9천 명, 15.2%), 30대(2만 9천 명, 16.4%)가 그 뒤를 따랐다. 50대(1만 9천 명, 7.1%), 40대(1만 6천 명, 6.7%), 10대(4천 명, 3.8%)도 크게 늘었다.

상용파트타임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고, 50대에서 2만 3천 명(40.8%), 40대에서 1만 1천명(19.2%), 60대에서 1만 명(23.3%), 20대에서 8천 명(44.1%) 증가했다.

<그림 10> 연령대별 임시파트타임 규모 추이



<표 7> 연령대별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단위: 천 명, %)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전체		
임금노동자		규모	194	3,555	4,690	4,979	4,435	1,943	763	20,559		
		연령대 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형태 내%	0.9	17.3	22.8	24.2	21.6	9.5	3.7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규모	27	1,974	3,429	3,432	2,580	537	44	12,023	
			연령대 내%	14.1	55.5	73.1	68.9	58.2	27.6	5.8	58.5	
			고용형태 내%	0.2	16.4	28.5	28.5	21.5	4.5	0.4	100.0	
		비정규직	규모	166	1,581	1,262	1,547	1,855	1,406	719	8,536	
			연령대 내%	85.9	44.5	26.9	31.1	41.8	72.4	94.2	41.5	
			고용형태 내%	1.9	18.5	14.8	18.1	21.7	16.5	8.4	100.0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규모	17	309	266	306	374	192	38	1,502
				연령대 내%	8.9	8.7	5.7	6.1	8.4	9.9	5.0	7.3
				고용형태 내%	1.2	20.6	17.7	20.3	24.9	12.8	2.6	100.0
			기간제	규모	13	536	497	480	529	388	67	2,509
				연령대 내%	6.9	15.1	10.6	9.6	11.9	20.0	8.7	12.2
				고용형태 내%	0.5	21.4	19.8	19.1	21.1	15.5	2.7	100.0
		단시간	상용파트	규모	0	27	63	70	78	52	9	300
				연령대 내%	0.2	0.8	1.3	1.4	1.8	2.7	1.2	1.5
				고용형태 내%	0.1	9.1	21.1	23.4	26.0	17.3	3.0	100.0
			임시파트	규모	121	543	205	257	289	297	469	2,180
				연령대 내%	62.3	15.3	4.4	5.2	6.5	15.3	61.5	10.6
				고용형태 내%	5.5	24.9	9.4	11.8	13.2	13.6	21.5	100.0
		간접고용	호출노동	규모	8	51	60	135	225	164	32	676
				연령대 내%	4.2	1.4	1.3	2.7	5.1	8.4	4.2	3.3
				고용형태 내%	1.2	7.5	8.9	20.0	33.4	24.2	4.8	100.0
			용역노동	규모	3	40	43	90	153	214	72	615
				연령대 내%	1.8	1.1	0.9	1.8	3.4	11.0	9.5	3.0
				고용형태 내%	0.6	6.5	7.0	14.6	24.8	34.8	11.7	100.0
파견노동	규모		2	18	35	38	44	31	14	182		
	연령대 내%		1.0	0.5	0.7	0.8	1.0	1.6	1.8	0.9		
	고용형태 내%		1.0	9.9	19.2	20.8	24.2	17.3	7.6	100.0		
특수고용	개인도급		규모	0	49	86	161	158	62	10	526	
			연령대 내%	0.2	1.4	1.8	3.2	3.6	3.2	1.3	2.6	
			고용형태 내%	0.1	9.4	16.4	30.6	30.0	11.8	1.8	100.0	
	재택노동	규모	1	8	6	11	6	5	8	46		
		연령대 내%	0.5	0.2	0.1	0.2	0.1	0.3	1.0	0.2		
		고용형태 내%	2.3	16.8	14.2	24.7	13.6	11.9	16.6	100.0		

5. 학력별 특징

비정규직 비율은 학력수준에 반비례한다.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낮아진다. 학력수준별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초졸 이하는 85.4%, 중졸은 74.3%에 달하며, 고졸 역시 51.5%로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그러나 초대졸 학력자부터는 정규직 비율이 69.1%로 비정규직 비율 30.9%를 상회하기 시작하며, 대졸, 대학원졸로 학력수준이 높아지면 정규직 비율도 75.8%, 77.8%로 상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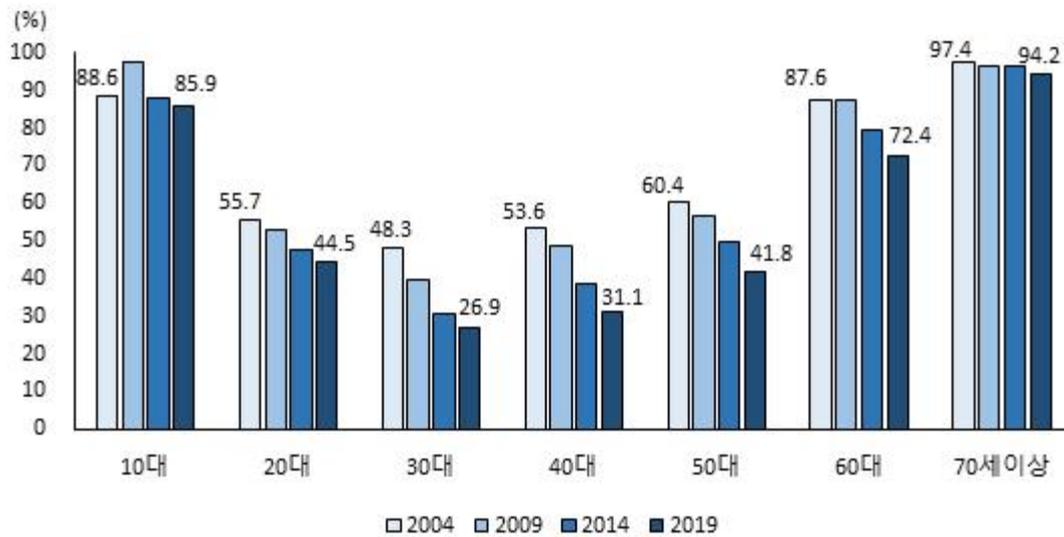
각 학력수준별 비정규직 내에서 세부 고용형태 분포를 살펴보면, 초졸 이하는 일반임시직, 기간제, 임시파트타임, 파견노동, 호출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졸은 개인도급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졸은 상용파트타임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고학력 집단의 비정규직 분포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초대졸은 기간제, 상용파트타임, 개인도급, 파견노동에서 상대적 비율이 높고, 대학원졸은 기간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졸은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인 비율이 높지 않았다.

즉, 일반임시직, 호출노동, 용역노동 비율은 저학력 집단에서, 상용파트타임 비율은 고학력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장기 추세를 보면 고학력 집단의 비정규직 비율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저학력 집단의 비정규직 비율 하락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9> 연령대별 비정규직 추이 (단위: %)



〈표 8〉 학력별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단위: 천 명, %)

			초졸이하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전체		
임금노동자		규모	1,082	1,325	7,548	2,991	6,569	1,044	20,559		
		학력 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형태 내%	5.3	6.4	36.7	14.5	32.0	5.1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규모	158	341	3,664	2,066	4,981	812	12,023	
			학력 내%	14.6	25.7	48.5	69.1	75.8	77.8	58.5	
			고용형태 내%	1.3	2.8	30.5	17.2	41.4	6.8	100.0	
		비정규직	규모	341	984	3,884	924	1,587	232	8,536	
			학력 내%	31.5	74.3	51.5	30.9	24.2	22.2	41.5	
			고용형태 내%	4.0	11.5	45.5	10.8	18.6	2.7	100.0	
비정규직 고용형태		일반임시직	규모	97	178	785	158	263	21	1,502	
			학력 내%	9.0	13.4	10.4	5.3	4.0	2.0	7.3	
			고용형태 내%	6.5	11.8	52.3	10.5	17.5	1.4	100.0	
			기간제	규모	145	221	1,008	375	624	136	2,509
				학력 내%	13.4	16.7	13.4	12.6	9.5	13.1	12.2
				고용형태 내%	5.8	8.8	40.2	15.0	24.9	5.4	100.0
		단시간	상용파트	규모	16	23	102	51	93	15	300
				학력 내%	1.5	1.8	1.4	1.7	1.4	1.4	1.5
				고용형태 내%	5.3	7.8	34.0	17.1	30.9	4.9	100.0
			임시파트	규모	424	231	998	140	339	48	2,180
				학력 내%	39.2	17.5	13.2	4.7	5.2	4.6	10.6
				고용형태 내%	19.4	10.6	45.8	6.4	15.6	2.2	100.0
		간접고용	호출노동	규모	103	150	347	40	35	1	676
				학력 내%	9.6	11.4	4.6	1.3	0.5	0.1	3.3
				고용형태 내%	15.3	22.3	51.3	5.9	5.1	0.1	100.0
			용역노동	규모	104	121	290	47	51	2	615
				학력 내%	9.6	9.1	3.8	1.6	0.8	0.2	3.0
				고용형태 내%	17.0	19.7	47.1	7.7	8.3	0.3	100.0
			파견노동	규모	11	20	88	30	32	2	182
				학력 내%	1.0	1.5	1.2	1.0	0.5	0.2	0.9
				고용형태 내%	5.8	11.0	48.1	16.2	17.6	1.3	100.0
		특수고용	개인도급	규모	16	33	245	82	145	6	526
				학력 내%	1.4	2.5	3.2	2.7	2.2	0.6	2.6
				고용형태 내%	3.0	6.2	46.6	15.6	27.5	1.2	100.0
재택노동	규모		8	6	22	1	7	1	46		
	학력 내%		0.7	0.5	0.3	0.0	0.1	0.1	0.2		
	고용형태 내%		17.5	13.9	47.5	3.0	15.5	2.7	100.0		

6. 산업별 특징

산업 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넘는 산업은 농림어업(81.9%), 숙박·음식점업(74.2%), 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70.6%),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70.1%), 건설업(60.4%), 부동산·임대업(56.3%), 가구내 고용(100%) 등이다. 서비스업 중에서 임금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도 비정규직 비율이 40.8%이다. 또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3%)과 교육서비스업(44.7%) 역시 비정규직 비율이 40%를 상회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조업(19.6%), 출판·영상·방송업(14.5%)과 전기·가스·수도업(14.5%)은 비정규직 비율이 20% 미만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직종인 공공행정국방은 34.6%로 전 산업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전년도 비율인 29.0%보다 대폭 늘어났다.

각 산업별 비정규직의 세부 고용형태 분포를 전 산업 평균의 경우와 비교하면, 제조업은 기간제, 일반임시직, 임시파트타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건설업은 호출노동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도소매업은 일반임시직, 임시파트타임, 기간제의 비율이 높고, 숙박·음식점업은 임시파트타임, 일반임시직, 기간제의 비율이 높다. 금융·보험업은 개인도급의 비율이 매우 높고 기간제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부동산·임대업은 기간제, 일반임시직, 임시파트타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은 용역노동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기간제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임시파트타임과 기간제의 비율이 높으며,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과 협회·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은 기간제, 일반임시직 그리고 임시파트타임의 비율이 높다.

각 고용형태별 비정규직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일반임시직은 숙박·음식점업(21.2%), 도소매업(17.6%), 제조업(12.4%)에 많이 분포해 있고, 이들 네 산업의 비율을 합하면 50%가 넘는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은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일반임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다. 그 다음은 건설업(10.2%), 협회·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7.1%)으로 이 또한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일반임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기간제는 임시일용직보다 더 다양한 산업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5.4%)과 제조업(14.5%)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고,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산업은 건설업(11.3%), 교육서비스업(9.2%), 도소매업(8.0%), 공공·행정·국방(5.1%)이다. 그 중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은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기간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상용파트타임은 기간제보다 일부 업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5.4%), 도소매업(15.0%), 제조업(10.9%) 등 세 산업의 비율을 합하면 50%를 상회한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임금노

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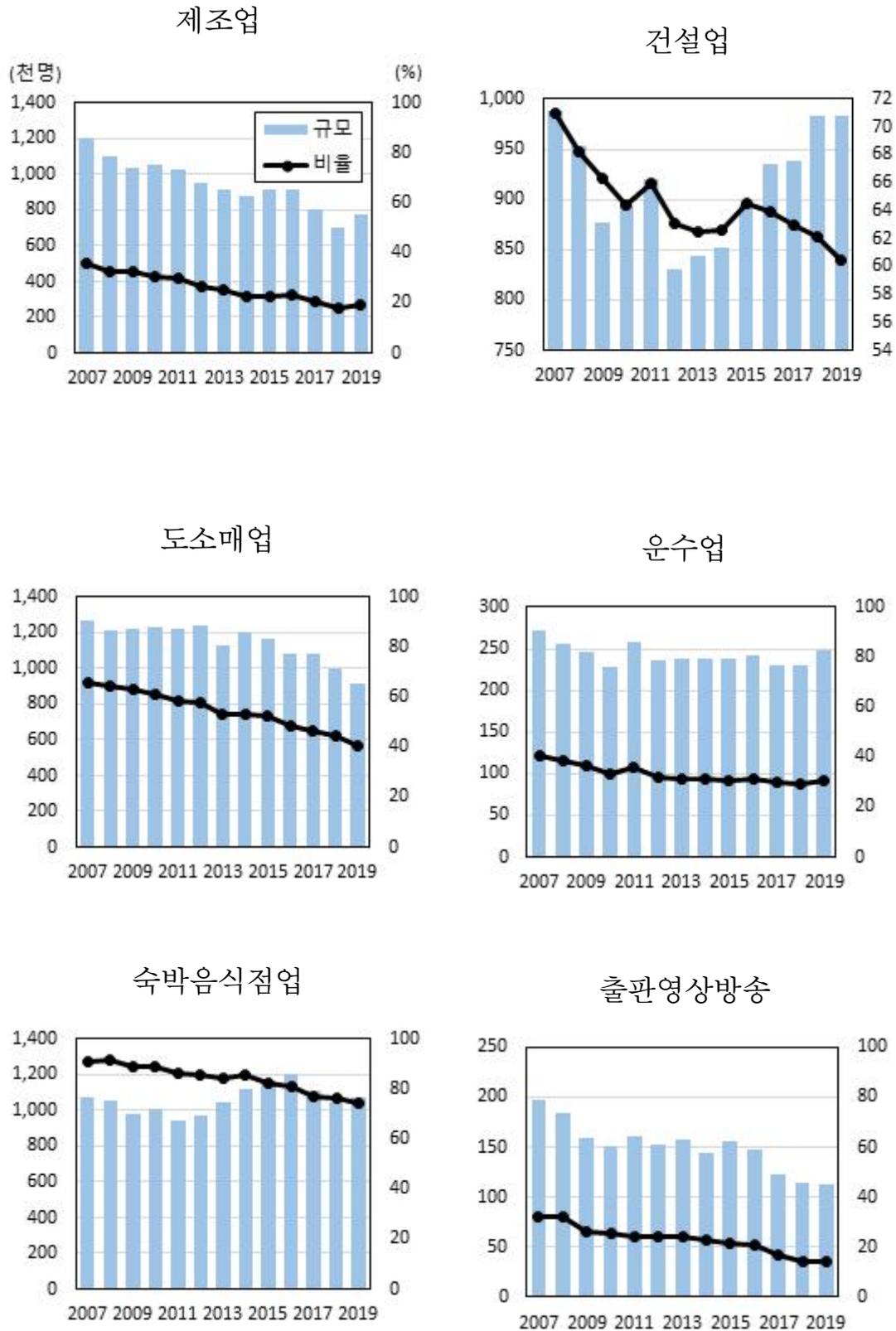
임시파트타임 노동자의 22.3%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숙박·음식점업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7.0%를 크게 상회한다. 임시파트타임 노동자 분포에서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산업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9.7%), 교육서비스업(13.2%), 공공·행정·국방(11.0%)이다. 이들 상위 네 산업의 비중을 더하면 65.9%에 달한다.

호출노동, 개인도급, 파견노동, 용역노동은 특정 업종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호출노동자는 절반 이상(64.5%)이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다. 개인도급 노동자의 다수(39.8%)가 금융·보험업에 분포해 있고, 21.9%는 도소매업에, 11.5%는 교육서비스업에 분포해 있다. 파견노동자의 절반 정도(43.4%)와 용역노동자의 거의 대부분(79.3%)는 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에 분포해 있다. 파견노동의 경우에는 도소매업(14.3%),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0.3%)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산업별 비정규직 추이를 보면, 전년에 비해 대부분의 산업에서 비정규직 비율과 규모가 증가하였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0만 4천 명(12.2%), 교육서비스업이 8만 1천 명(13.3%), 제조업이 7만 4천 명(10.6%), 공공·행정·국방이 4만 6천 명(13.9%), 예술·스포츠·여가업이 4만 4천 명(22.6%), 숙박·음식업이 3만 명(2.9%) 증가하였다. 반면, 도소매업은 8만 1천 명(-8.0%), 협회·단체·서비스업은 6만 7천 명(-16.5%), 금융·보험업은 2만 명(-6.5%) 감소했다. 공공·행정·국방은 정규직이 9만 7천 명(-12.2%) 감소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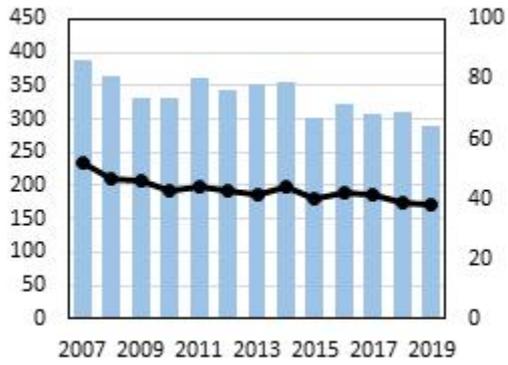
고, 비정규직이 4만 6천 명(13.9%) 증가했다.

〈그림 12〉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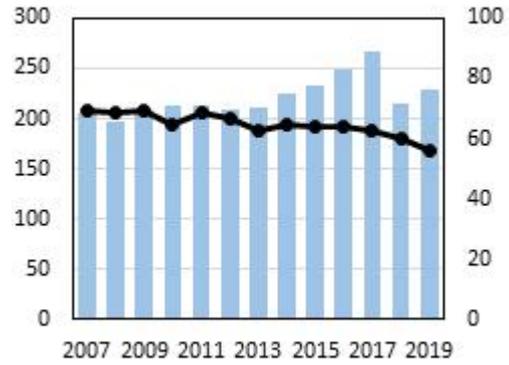


〈그림 12〉 앞 장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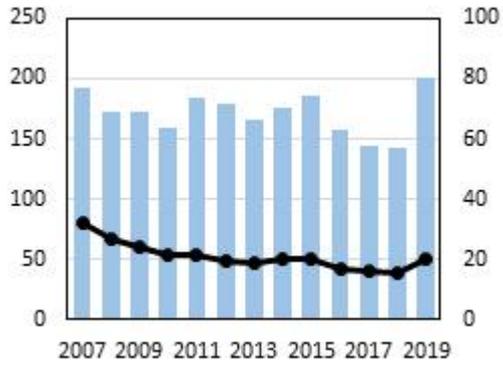
금융보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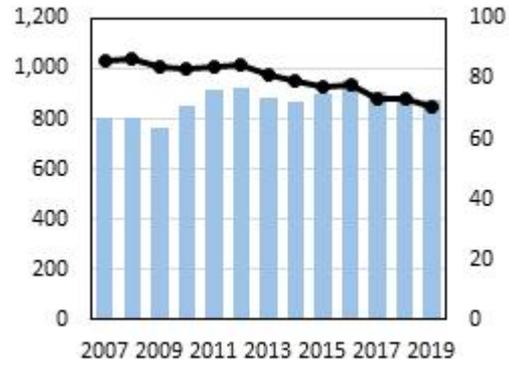
부동산임대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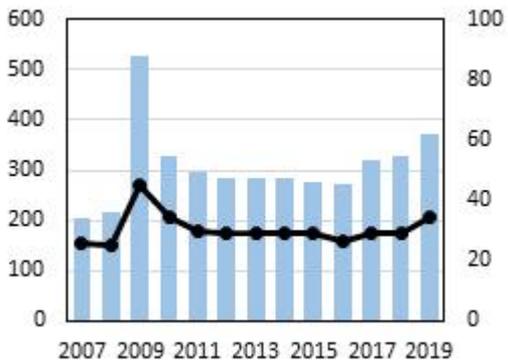
전문과학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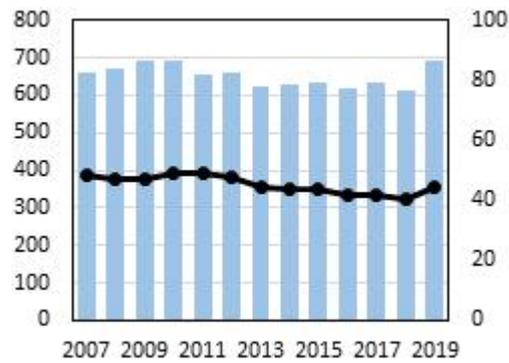
시설관리



공공행정국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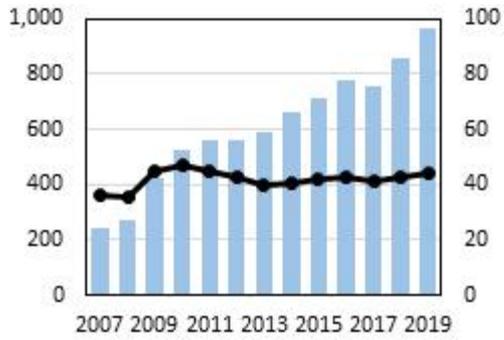


교육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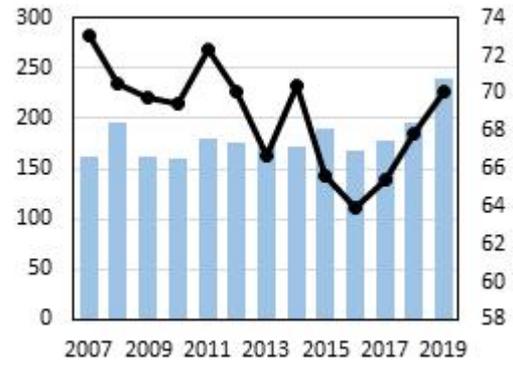


<그림 12> 앞 장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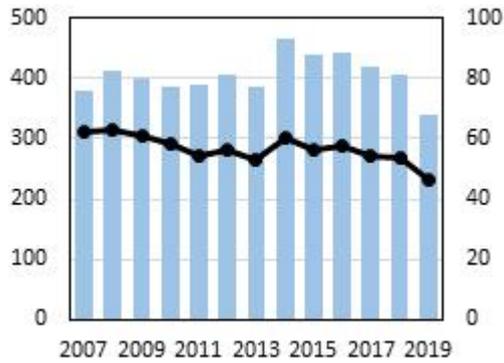
보건사회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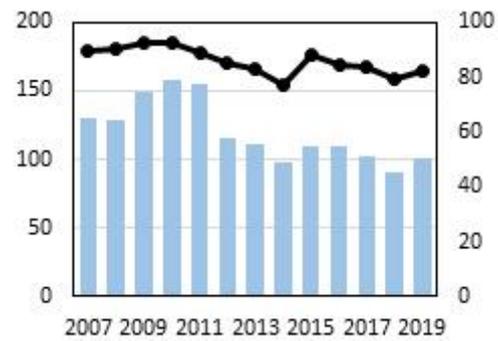
예술서비스여가업



협회단체서비스업



농림어업



〈표 9〉 산업별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단위: 천 명, %)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업	하수폐기 물환경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 점업	출판영상 방송업	금융보험 업			
임금노동자		규모	123	12	3,946	71	132	1,627	2,253	808	1,446	777	761			
		산업 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형태 내%	0.6	0.1	19.2	0.3	0.6	7.9	11.0	3.9	7.0	3.8	47.0			
정규직 여부		정규직	규모	22	11	3,174	61	102	644	1,333	560	373	664	470		
			산업 내%	18.1	92.5	80.4	85.5	77.5	39.6	59.2	69.4	25.8	85.5	61.8		
			고용형태 내%	0.2	0.1	26.4	0.5	0.9	5.4	11.1	4.7	3.1	5.5	3.9		
		비정규직	규모	100	1	772	10	30	983	920	248	1,074	113	291		
			산업 내%	81.9	7.5	19.6	14.5	22.5	60.4	40.8	30.6	74.2	14.5	38.2		
			고용형태 내%	1.2	0.0	9.0	0.1	0.3	11.5	10.8	2.9	12.6	1.3	3.4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규모	25	0	198	1	5	163	280	52	338	13	16	
				산업 내%	20.8	0.0	5.0	1.5	3.5	10.0	12.4	6.4	23.4	1.6	2.1	
				고용형태 내%	1.6	0.0	12.4	0.1	0.3	10.2	17.6	3.2	21.2	0.8	1.0	
			기간제	규모	35	1	364	8	17	284	200	104	162	68	48	
				산업 내%	28.9	7.5	9.2	11.8	12.5	17.4	8.9	12.9	11.2	8.7	6.3	
				고용형태 내%	1.4	0.0	14.5	0.3	0.7	11.3	8.0	4.1	6.4	2.7	1.9	
		단시간	상용파트	규모	1	0	33	0	4	21	45	7	24	4	5	
				산업 내%	0.9	0.0	0.8	0.0	3.3	1.3	2.0	0.9	1.6	0.5	0.7	
				고용형태 내%	0.4	0.0	10.9	0.0	1.5	6.9	15.0	2.3	7.9	1.4	1.7	
			임시파트	규모	7	0	93	1	2	35	219	27	485	18	7	
				산업 내%	5.4	0.0	2.4	1.2	1.3	2.2	9.7	3.4	33.5	2.3	0.9	
				고용형태 내%	0.3	0.0	4.3	0.0	0.1	1.6	10.1	1.2	22.3	0.8	0.3	
		간접고용	호출노동	규모	30	0	37	0	0	436	28	19	52	0	4	
				산업 내%	24.3	0.0	0.9	0.0	0.2	26.8	1.2	2.3	3.6	0.0	0.5	
				고용형태 내%	4.4	0.0	5.5	0.0	0.0	64.5	4.1	2.8	7.7	0.0	0.6	
			용역노동	규모	0	0	10	0	1	33	1	10	4	0	1	
				산업 내%	0.0	0.0	0.3	0.0	0.7	2.1	0.0	1.2	0.3	0.0	0.2	
				고용형태 내%	0.0	0.0	5.7	0.0	0.1	5.1	0.1	1.5	0.6	0.0	0.2	
			파견노동	규모	0	0	10	0	1	10	26	4	6	6	1	
				산업 내%	0.0	0.0	0.3	0.0	0.8	0.6	1.2	0.4	0.4	0.8	0.1	
				고용형태 내%	0.0	0.0	1.5	0.0	0.6	5.2	14.3	2.0	3.2	3.3	0.3	
			특수고용	개인도급	규모	2	0	4	0	0	0	115	26	3	3	209
					산업 내%	1.5	0.0	0.1	0.0	0.0	0.0	5.1	3.2	0.2	0.3	27.5
					고용형태 내%	0.4	0.0	0.8	0.0	0.0	0.0	21.9	4.9	0.6	0.5	39.8
재택노동	규모	0		0	22	0	0	1	5	0	1	1	0			
	산업 내%	0.2		0.0	0.6	0.0	0.0	0.1	0.2	0.0	0.1	0.2	0.0			
	고용형태 내%	0.4		0.0	47.9	0.0	0.0	3.1	12.0	0.0	2.3	3.2	0.0			

〈표 9〉 앞 장에서 계속

			부동산임 대업	전문과학 서비스업	시설관리 업	공공행정 국방	교육서비 스업	보건사회 서비스업	예술스포 츠여가업	협회단체 서비스업	가구내고 용	국제및외 국기관	전체		
임금노동자		규모	406	996	1,241	1,079	1,548	2,173	343	726	81	10	20,559		
		산업 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형태 내%	2.0	4.8	6.0	5.2	7.5	10.6	1.7	3.5	0.4	0.1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규모	177	795	364	706	856	1,210	103	387	0	9	12,023	
			산업 내%	43.7	79.8	29.4	65.4	55.3	55.7	29.9	53.3	0.0	89.9	58.5	
			고용형태 내%	1.5	6.6	3.0	5.9	7.1	10.1	0.9	3.2	0.0	0.1	100.0	
		비정규직	규모	228	201	876	374	692	963	241	339	81	1	8,536	
			산업 내%	56.3	20.2	70.6	34.6	44.7	44.3	70.1	46.7	100.0	10.1	41.5	
			고용형태 내%	2.7	2.4	10.3	4.4	8.1	11.3	2.8	4.0	0.9	0.0	100.0	
비정규직 고용형태		일반임시직	규모	43	24	40	2	82	39	50	113	19	0	1,592	
			산업 내%	10.6	2.4	3.2	0.1	5.3	1.8	14.7	15.5	23.8	0.0	7.7	
			고용형태 내%	2.7	1.5	2.5	0.1	5.2	2.4	3.2	7.1	1.2	0.0	100.0	
			기간제	규모	82	123	141	128	231	378	65	61	10	1	2,509
				산업 내%	20.1	12.4	11.4	11.8	14.9	17.4	18.8	8.4	11.9	10.1	12.2
				고용형태 내%	3.3	4.9	5.6	5.1	9.2	15.1	2.6	2.4	0.4	0.0	100.0
		단시간	상용파트	규모	8	11	14	4	24	76	7	11	0	0	300
				산업 내%	2.1	1.1	1.1	0.4	1.6	3.5	2.1	1.5	0.0	0.0	1.5
				고용형태 내%	2.8	3.6	4.6	1.3	8.1	25.4	2.4	3.7	0.0	0.0	100.0
			임시파트	규모	32	33	40	239	287	430	95	93	39	0	2,180
				산업 내%	7.9	3.3	3.2	22.2	18.5	19.8	27.7	12.8	48.0	0.0	10.6
				고용형태 내%	1.5	1.5	1.8	11.0	13.2	19.7	4.4	4.3	1.8	0.0	100.0
		간접고용	호출노동	규모	5	1	20	1	3	3	5	22	10	0	676
				산업 내%	1.3	0.1	1.6	0.1	0.2	0.1	1.6	3.0	12.7	0.0	3.3
				고용형태 내%	0.8	0.1	3.0	0.1	0.4	0.4	0.8	3.3	1.5	0.0	100.0
			용역노동	규모	23	1	517	0	2	11	0	0	1	0	651
				산업 내%	5.6	0.1	41.6	0.0	0.1	0.5	0.1	0.0	0.9	0.0	3.2
				고용형태 내%	3.5	0.2	79.3	0.0	0.3	1.7	0.0	0.0	0.1	0.0	100.0
		파견노동	규모	8	2	79	0	2	19	6	3	0	0	182	
			산업 내%	2.0	0.2	6.4	0.0	0.1	0.9	1.8	0.4	0.4	0.0	0.9	
			고용형태 내%	4.5	1.0	43.4	0.1	0.9	10.3	3.4	1.6	0.2	0.0	100.0	
		특수고용	개인도급	규모	26	4	24	0	61	3	12	34	1	0	526
				산업 내%	6.5	0.4	2.0	0.0	3.9	0.1	3.4	4.7	0.7	0.0	2.6
				고용형태 내%	5.0	0.7	4.6	0.0	11.5	0.5	2.2	6.5	0.1	0.0	100.0
재택노동	규모		0	2	2	0	2	4	0	2	2	0	46		
	산업 내%		0.0	0.2	0.2	0.0	0.1	0.2	0.0	0.3	2.9	0.0	0.2		
	고용형태 내%		0.0	5.2	4.3	0.0	3.4	8.7	0.0	4.1	5.2	0.0	100.0		

7. 직업별 특징

직업 내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단순노무 종사자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약 80.6%에 달한다. 서비스 종사자(66.3%), 농림어업숙련 종사자(64.5%), 판매 종사자(59.3%)도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반대로, 관리자와 사무 종사자는 정규직 비율이 88.9%와 81.4%, 비정규직 비율이 11.1%와 18.6%로 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다. 전문가와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도 정규직 비율이 73.2%와 76.5%로 비정규직 비율 26.8%와 23.5%를 큰 폭으로 상회한다.

비정규직 내 직업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30.8%로 가장 많고, 서비스 종사자는 16.6%로 두 번째로 많다. 전문가 비율도 14.4%로 상당히 높다. 판매 종사자는 11.5%,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는 9.8%, 사무 종사자는 9.8%,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는 6.1%이며, 관리자와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율은 0.6%이다.

비정규직 세부 형태별 직업 분포를 보면, 일반임시직은 주로 단순노무(24.6%), 서비스(20.6%), 판매(14.2%), 기능 및 관련기능(9.8%)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기간제의 분포는 이와 매우 다르다. 전문가(23.1%)가 단순노무직(21.9%)보다 많고, 사무 종사자(16.4%)와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9.7%)의 비율도 상당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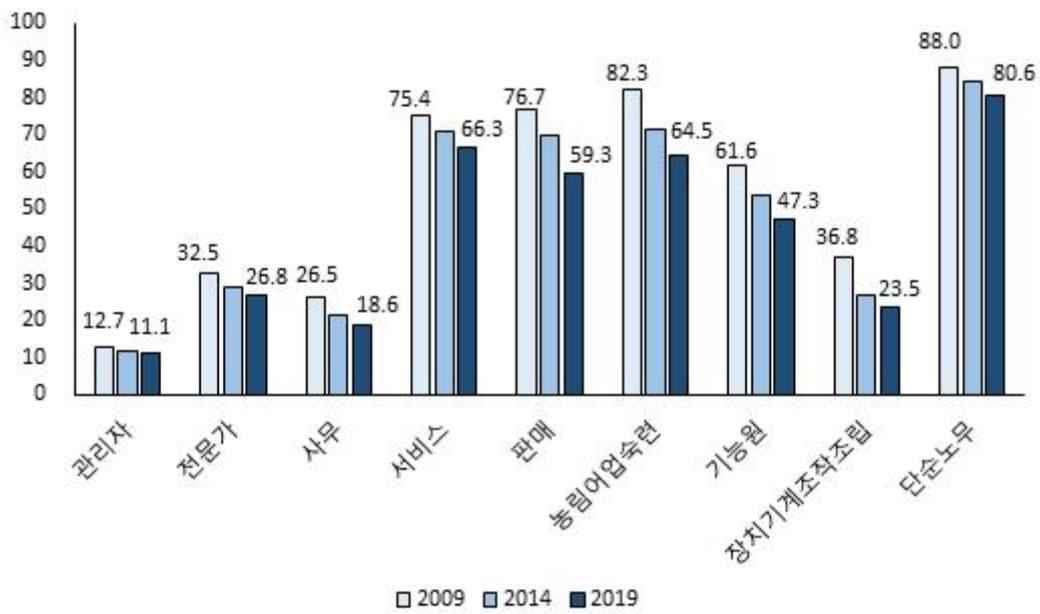
시간제의 직업 분포가 상용파트타임과 임시파트타임 간에 상당히 다르

다는 점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상용파트타임은 사무(29.6%), 서비스(25.6%), 전문가(17.6%) 순서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13.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임시파트타임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36.4%로 가장 높고, 서비스(27.7%), 전문가(14.2%)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판매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용파트타임은 7.2%이지만 임시파트타임은 10.7%로 상당히 높다.

호출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50%에 가깝거나 상회한다. 파견노동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26.2%로 가장 높기는 하지만, 판매(18.8%),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14.6%),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9.5%), 전문가(9.9%), 서비스(9.6%), 사무(10.5%) 등 여러 직업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관리자, 전문가, 사무, 장치·기계조작·조립은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했고,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단순노무는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했다. 구조적으로 높은 직업 중에서 판매, 기능원 및 관련기능은 비정규직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단순노무 종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예전과 큰 차이 없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림 13> 직업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표 10〉 직업별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단위: 천 명, %)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숙련	기능 및 관련	장치기계 조작조립	단순노무	전체		
임금노동자		규모	364	4,586	4,509	2,130	1,656	76	1,762	2,219	3,258	20,559		
		직업 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형태 내%	1.8	22.3	21.9	10.4	8.1	0.4	8.6	10.8	15.8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규모	324	3,357	3,669	717	673	27	928	1,697	631	12,023	
			직업 내%	88.9	73.2	81.4	33.7	40.7	35.5	52.7	76.5	19.4	58.5	
			고용형태 내%	2.7	27.9	30.5	6.0	5.6	0.2	7.7	14.1	5.2	100.0	
		비정규직	규모	40	1,229	840	1,413	982	49	834	521	2,627	8,536	
			직업 내%	11.1	26.8	18.6	66.3	59.3	64.5	47.3	23.5	80.6	41.5	
			고용형태 내%	0.5	14.4	9.8	16.6	11.5	0.6	9.8	6.1	30.8	100.0	
비정규직 고용형태		일반임시직	규모	1	169	108	310	214	14	206	110	370	1,502	
			직업 내%	0.4	3.7	2.4	14.5	12.9	18.1	11.7	5.0	11.4	7.3	
			고용형태 내%	0.1	11.2	7.2	20.6	14.2	0.9	13.7	7.3	24.6	100.0	
			기간제	규모	29	579	412	289	131	24	252	244	548	2,509
				직업 내%	8.0	12.6	9.1	13.6	7.9	31.8	14.3	11.0	16.8	12.2
				고용형태 내%	1.2	23.1	16.4	11.5	5.2	1.0	10.0	9.7	21.9	100.0
		단시간	상용파트	규모	4	53	89	77	22	1	8	7	40	300
				직업 내%	1.2	1.1	2.0	3.6	1.3	0.9	0.4	0.3	1.2	1.5
				고용형태 내%	1.5	17.6	29.6	25.6	7.2	0.2	2.5	2.5	13.4	100.0
			임시파트	규모	1	310	165	604	233	2	37	34	794	2,180
				직업 내%	0.3	6.8	3.7	28.3	14.1	2.5	2.1	1.6	24.4	10.6
				고용형태 내%	0.0	14.2	7.6	27.7	10.7	0.1	1.7	1.6	36.4	100.0
		간접고용	호출노동	규모	0	1	7	46	14	6	264	19	320	676
				직업 내%	0.0	0.0	0.1	2.1	0.8	7.5	15.0	0.9	9.8	3.3
				고용형태 내%	0.0	0.2	1.0	6.8	2.0	0.8	39.0	2.8	47.4	100.0
			용역노동	규모	2	8	22	45	12	1	40	49	437	615
				직업 내%	0.5	0.2	0.5	2.1	0.7	0.7	2.2	2.2	13.4	3.0
				고용형태 내%	0.3	1.2	3.6	7.4	2.0	0.1	6.4	8.0	71.0	100.0
		파견노동	규모	1	18	19	18	34	0	17	27	48	182	
			직업 내%	0.3	0.4	0.4	0.8	2.1	0.6	1.0	1.2	1.5	0.9	
			고용형태 내%	0.7	9.9	10.5	9.6	18.8	0.2	9.5	14.6	26.2	100.0	
		특수고용	개인도급	규모	1	85	13	22	318	2	5	28	50	526
				직업 내%	0.4	1.8	0.3	1.1	19.2	2.5	0.3	1.3	1.5	2.6
				고용형태 내%	0.2	16.1	2.6	4.3	60.5	0.4	6.4	5.4	9.4	100.0
재택노동	규모		0	6	5	3	4	0	5	2	21	46		
	직업 내%		0.0	0.1	0.1	0.1	0.2	0.0	0.3	0.1	0.6	0.2		
	고용형태 내%		0.0	13.8	10.7	6.6	8.2	0.0	10.7	3.9	46.1	100.0		

8. 기업규모별 특징

비정규직 비율과 기업규모는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정규직이 30.3%에 불과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69.7%에 달한다. 반대로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정규직이 84.6%, 비정규직이 15.4%로 정규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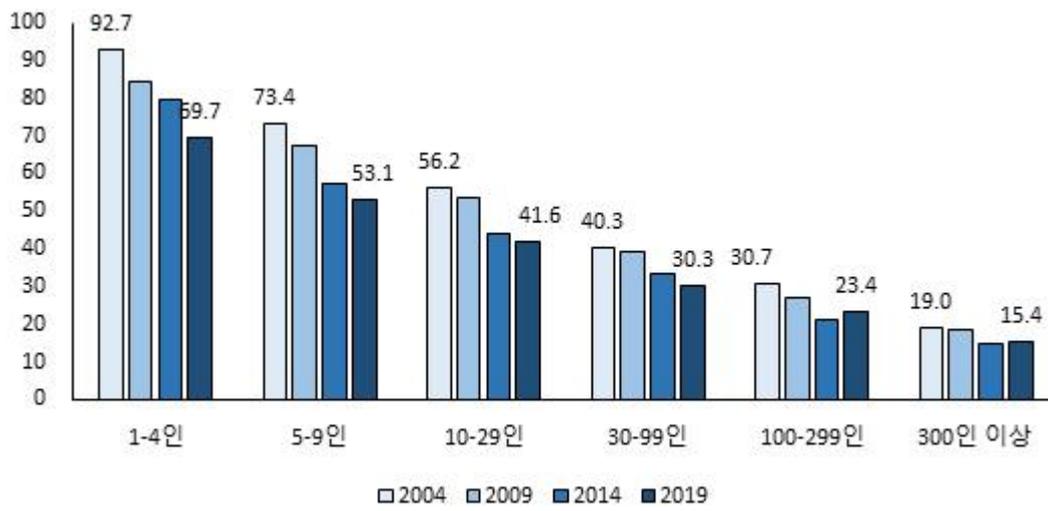
이는 기업 간 지불능력 및 인력 운용 방식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산업 효과 때문이기도 하며 조사 방식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비정규직 비율은 산업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정규직 비율이 높은 제조업이나 공공부문은 대기업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은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은 영세 사업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구조적 특징이 비정규직 비율과 기업규모 간 역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한편 대기업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주화/아웃소싱을 통해서 간접고용 형태로 활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업 간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가구 조사에서는 대기업의 광범위한 비정규직 활용이 드러나지 않을 개연성도 매우 크다.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별 비중도 기업규모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소규모 기업은 일반임시직과 임시파트타임, 호출노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이러한 고용형태들의 비중은 줄어들고 기간제의 상대적 비중이 증대된다.

2018년과 비교하면 전 규모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상승하였다. 4인 미만 기업은 정규직이 15만 4천 명(15.5%)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10만 1천 명(4.0%) 증가하였으며, 5인~9인 기업은 정규직이 8만 1천 명(5.0%)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2만 3천 명(1.2%) 증가하였다. 300인 이상 기업도 비정규직이 5만 7천명(16.2%) 증가하고 정규직이 7만 명(3.2%) 증가했다.

그러나 증견수준인 10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비정규직은 증가했지만 정규직은 감소하였다. 10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은 비정규직이 1만 명(0.5%) 증가하였으나 정규직은 1만 8천 명(-0.7%) 감소하였다.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 역시 비정규직이 11만 6천 명(10.8%) 증가하였고 정규직은 11만 1천 명(-3.9%) 감소하였다.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비정규직이 4만 8천 명(10.4%) 증가하였으나 정규직은 1만 8천 명(-1.2%) 감소하였다.

<그림 14>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표 11〉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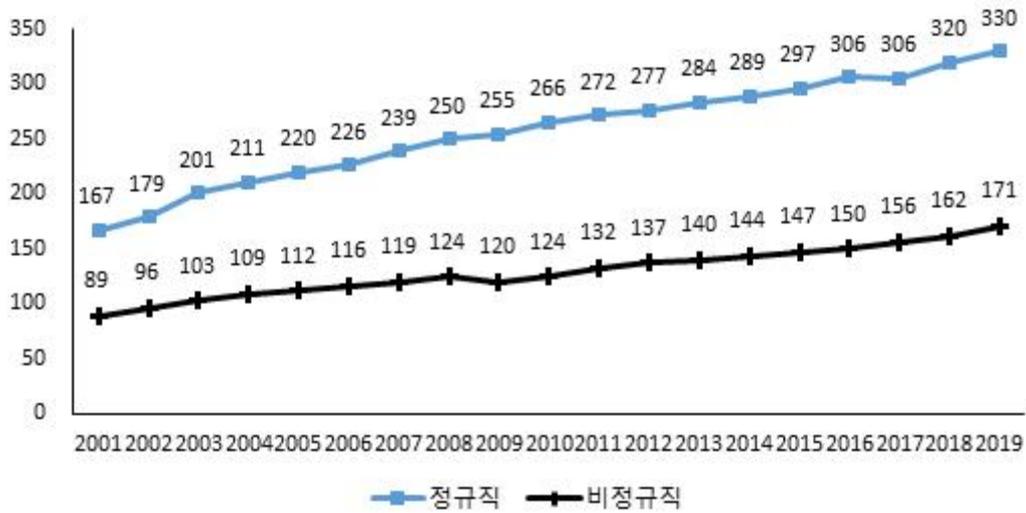
			1-4명	5-9명	10-29명	30-99명	100-299명	300명이상	전체			
임금노동자		규모	3,783	3,648	4,581	3,896	1,989	2,661	20,559			
		기업규모 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형태 내%	18.4	17.7	22.3	19.0	9.7	12.9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규모	1,148	1,710	2,675	2,714	1,524	2,252	12,023		
			기업규모 내%	30.3	46.9	58.4	69.7	76.6	84.6	58.5		
			고용형태 내%	9.5	14.2	22.3	22.6	12.7	18.7	100.0		
		비정규직	규모	2,636	1,938	1,906	1,182	465	409	8,536		
			기업규모 내%	69.7	53.1	41.6	30.3	23.4	15.4	41.5		
			고용형태 내%	30.9	22.7	22.3	13.9	5.4	4.8	100.0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규모	665	418	271	82	38	28	1,502	
				기업규모 내%	17.6	11.5	5.9	2.1	1.9	1.1	7.3	
				고용형태 내%	44.3	27.9	18.1	5.4	2.5	1.9	100.0	
			기간제	규모	359	484	591	530	264	281	2,509	
				기업규모 내%	9.5	13.3	12.9	13.6	13.2	10.6	12.2	
				고용형태 내%	14.3	19.3	23.5	21.1	10.5	11.2	100.0	
		단시간	상용파트	규모	42	71	89	38	21	9	300	
				기업규모 내%	1.1	1.9	1.9	1.0	1.0	0.3	1.5	
				고용형태 내%	14.0	23.6	29.6	12.6	6.9	3.0	100.0	
			임시파트	규모	860	493	422	215	61	56	2,180	
				기업규모 내%	22.7	13.5	9.2	5.5	3.1	2.1	10.6	
				고용형태 내%	39.4	22.6	19.4	9.9	2.8	2.6	100.0	
		간접고용	호출노동	규모	273	235	128	29	9	2	676	
				기업규모 내%	7.2	6.4	2.8	0.7	0.5	0.1	3.3	
				고용형태 내%	40.4	34.8	19.0	4.2	1.4	0.3	100.0	
			용역노동	규모	137	154	185	96	25	14	615	
				기업규모 내%	3.6	4.2	4.0	2.5	1.3	0.5	3.0	
				고용형태 내%	22.2	25.0	30.0	15.6	4.1	2.2	100.0	
			파견노동	규모	43	33	43	37	13	9	182	
				기업규모 내%	1.1	0.9	0.9	0.9	0.7	0.4	0.9	
				고용형태 내%	23.4	18.2	23.5	20.1	7.3	5.2	100.0	
			특수고용	개인도급	규모	84	44	171	152	32	8	526
					기업규모 내%	2.2	1.2	3.7	3.9	1.6	0.3	2.6
					고용형태 내%	15.9	8.4	32.5	28.8	6.1	1.5	100.0
재택노동	규모	17		4	6	5	2	2	46			
	기업규모 내%	0.5		0.1	0.1	0.1	0.1	0.1	0.2			
	고용형태 내%	37.6		9.1	13.8	10.3	4.0	4.3	100.0			

Ⅲ.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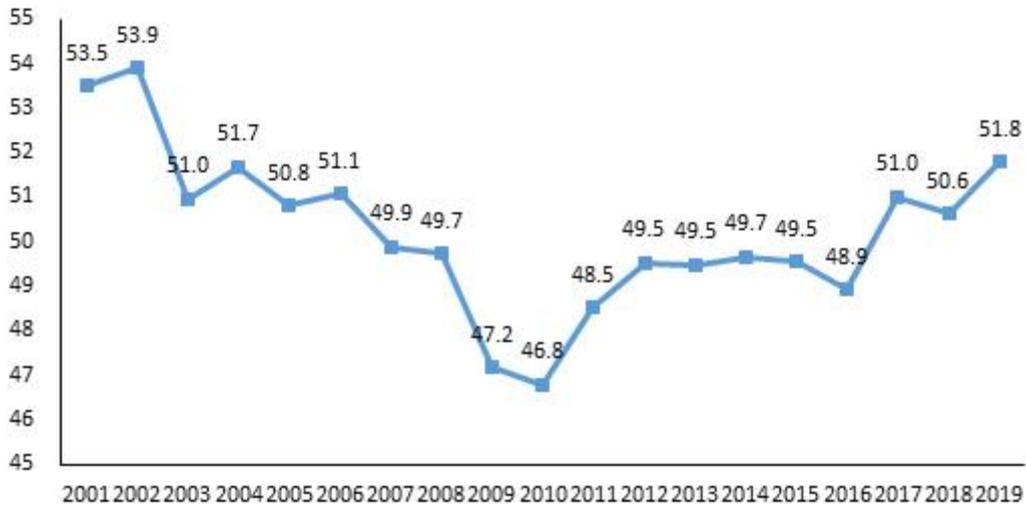
1. 임금

2019년 8월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30만원,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71만원이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64만원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비율은 2018년 50.6%에서 2019년 51.8%로 1.2%p 상승했다.

<그림 15>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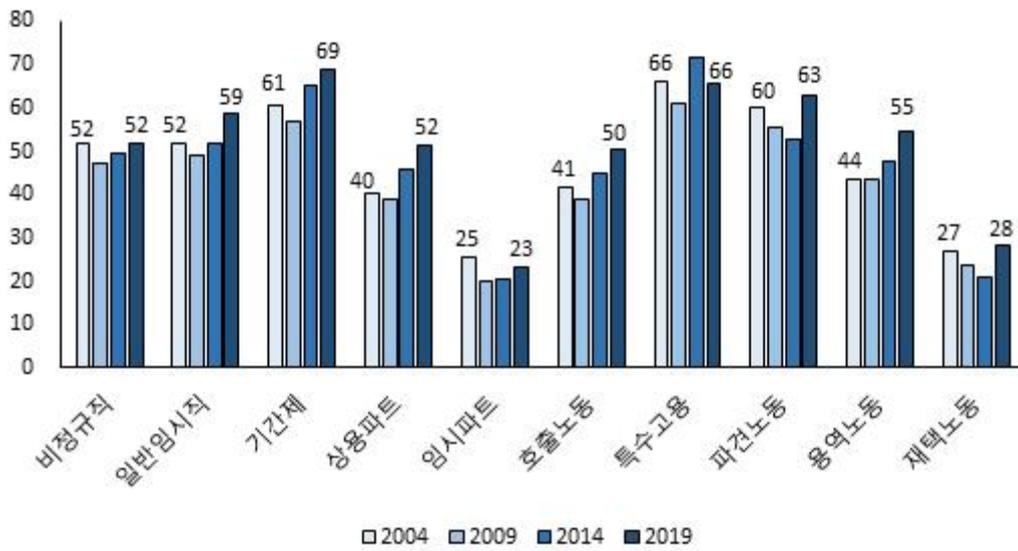
<그림 16>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월평균 임금 비율 추이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 중에서는 기간제(228만 원), 개인도급(217만 원), 파견노동(207만 원), 그리고 일반임시직(194만 원), 용역노동(181만 원)의 임금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171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며, 호출노동(167만 원), 재택(93만 원) 등은 비정규직 평균 임금보다 낮다. 한편 상용파트타임은 월 노동시간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보다 높은 170만원이었으며, 임시파트타임이 76만원으로 전체 비정규직 유형 중에서도 월평균 임금수준이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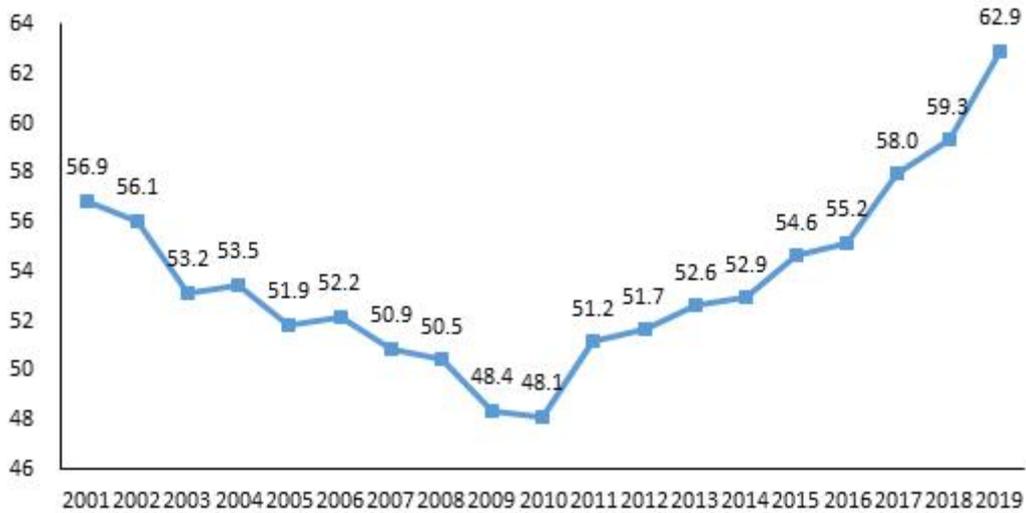
시간제는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에 월평균 임금이 전일제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간제 노동의 급격한 확산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2010년을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9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2.9% 수준으로 조사 이래 최초로 60%를 넘어섰으며, 월평균 임금 비율 51.8%보

<그림 17>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정규직 대비 월평균 임금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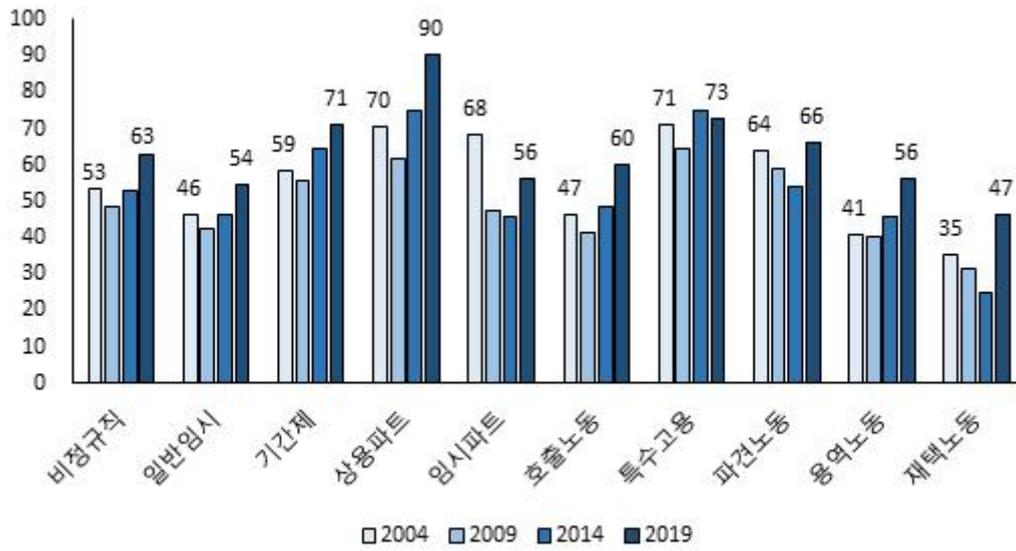


다 높다. 이는 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8>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비율 추이(단위: %)



<그림 19>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비율 추이



〈표 13〉 연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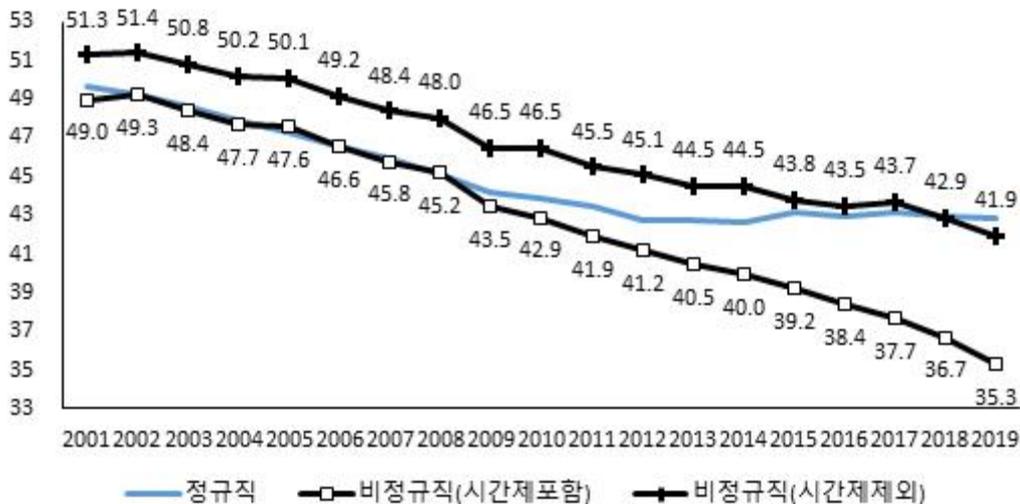
조사년	임금노동자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단시간		간접고용			특수고용	
		정규직	비정규직	일반임시직	기간제	상용파트	임시파트	호출노동	용역노동	파견노동	개인도급	재택노동
2001	6,105	8,012	4,557	3,996	4,831	13,734	6,924	3,982	3,856	4,965	5,759	3,453
2002	6,503	8,638	4,843	4,273	5,368	13,030	7,482	4,278	3,883	5,405	6,284	3,446
2003	7,309	9,868	5,246	4,679	5,589	16,325	6,825	5,351	3,977	5,481	6,847	2,929
2004	7,817	10,555	5,644	4,879	6,188	7,433	7,193	4,908	4,331	6,756	7,481	3,735
2005	8,174	11,198	5,806	4,906	6,506	9,168	7,343	5,012	4,433	6,972	7,688	4,385
2006	8,597	11,650	6,080	5,312	7,033	12,161	7,277	5,000	4,421	6,356	7,999	4,115
2007	9,146	12,446	6,335	5,398	7,768	8,947	6,852	5,440	4,942	7,234	8,354	3,566
2008	9,826	13,235	6,679	5,667	8,133	8,784	7,221	5,661	5,408	7,859	8,836	3,979
2009	10,053	13,722	6,639	5,864	7,664	8,462	6,514	5,666	5,564	8,099	8,841	4,312
2010	10,641	14,381	6,924	6,215	8,165	14,094	6,446	5,957	6,115	7,850	9,392	3,803
2011	11,253	14,814	7,579	6,522	9,176	13,189	7,429	6,195	6,356	8,494	10,596	4,462
2012	11,758	15,264	7,886	6,788	10,069	11,533	6,717	6,782	6,527	9,793	10,531	5,555
2013	12,256	15,637	8,232	7,054	10,199	13,248	7,417	7,196	7,193	8,690	10,541	4,612
2014	12,527	15,915	8,425	7,370	10,280	11,933	7,296	7,684	7,329	8,613	11,902	3,937
2015	12,911	16,192	8,846	7,668	10,666	16,755	7,884	7,898	7,725	9,594	11,543	6,285
2016	13,456	16,793	9,263	7,883	11,588	14,177	8,117	8,462	8,298	10,229	11,871	6,587
2017	13,714	16,681	9,670	8,334	11,640	14,004	8,614	9,325	8,495	10,837	12,247	7,111
2018	14,599	17,505	10,384	8,900	12,271	15,073	9,482	9,928	9,368	11,396	11,542	7,596
2019	15,266	18,043	11,354	9,831	12,785	16,310	10,174	10,853	10,116	11,925	13,082	8,399

2. 노동시간

시간제를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35.3시간으로 정규직의 42.9시간보다 7.6시간 짧다. 하지만, 시간제를 제외한 나머지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41.9시간으로 정규직보다 1시간 짧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장기적으로는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단, 2012년 이후 최근 동향을 보면,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시간제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42~43 시간대에서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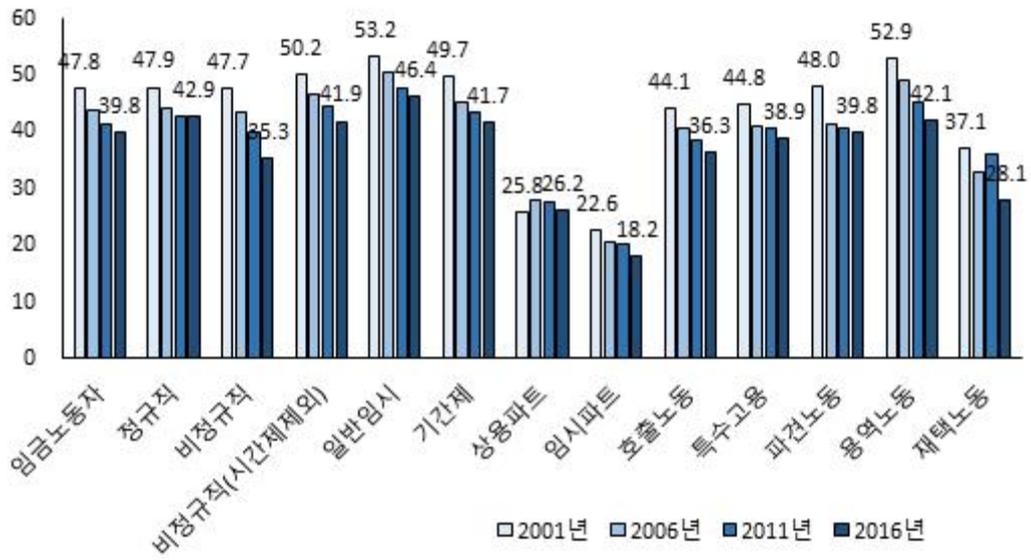
<그림 2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 추이



세부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을 보면, 일반임시직이 46.4시간으로 가장 길고, 용역노동(42.1시간)과 기간제(41.7시간)은 40시간을 상회한다. 나머지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며, 특히 임시파트타임은 18.2시간으로 20시간에도 못 미친다. 상용파트타

임의 주당 노동시간은 26.2시간으로 임시파트타임보다 8시간 길다.

<그림 21>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추이



〈표 14〉 연도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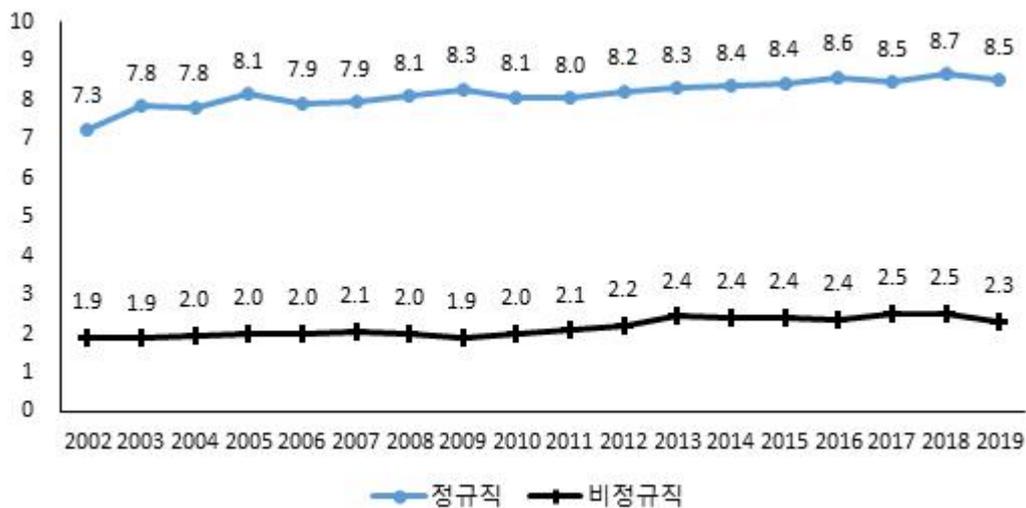
조사년	임금노동자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단시간		간접고용			특수고용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제외)	일반임시	기간제	상용파트	임시파트	호출노동	용역노동	파견노동	개인도급	재택노동
2001	49.3	49.7	49.0	51.3	53.7	50.9	19.9	21.6	45.4	52.3	48.8	46.1	39.0
2002	49.3	49.3	49.3	51.4	53.3	50.4	22.5	21.5	46.5	54.3	50.9	47.4	39.4
2003	48.5	48.6	48.4	50.8	53.2	50.1	26.9	22.7	44.7	54.1	49.1	45.3	39.2
2004	47.8	47.9	47.7	50.2	53.2	49.7	25.8	22.6	44.1	52.9	48.0	44.8	37.1
2005	47.5	47.3	47.6	50.1	53.3	49.2	24.9	21.9	43.6	52.2	48.2	45.2	37.4
2006	46.6	46.6	46.6	49.2	52.4	48.3	29.8	21.2	42.9	51.9	47.6	41.4	38.0
2007	45.9	46.0	45.8	48.4	51.8	47.6	24.9	21.3	41.3	51.0	46.0	41.7	35.8
2008	45.1	45.1	45.2	48.0	51.1	47.2	27.1	21.1	42.2	49.6	44.2	41.8	30.4
2009	43.9	44.2	43.5	46.5	50.5	45.3	27.9	20.6	40.6	49.0	41.3	41.1	33.0
2010	43.4	43.9	42.9	46.5	50.0	45.3	27.4	20.4	41.1	47.2	43.6	40.8	33.4
2011	42.7	43.5	41.9	45.5	49.5	44.0	26.1	19.5	40.6	46.6	42.8	39.7	31.9
2012	42.0	42.8	41.2	45.1	48.9	43.7	27.5	20.0	40.0	47.0	39.1	39.8	33.2
2013	41.7	42.8	40.5	44.5	48.6	43.2	27.4	20.3	39.5	45.5	39.3	39.9	32.1
2014	41.5	42.7	40.0	44.5	47.9	43.5	27.7	20.2	38.4	45.2	40.7	40.6	36.0
2015	41.4	43.2	39.2	43.8	47.5	43.4	25.6	19.5	37.0	44.7	37.5	39.5	32.1
2016	40.9	43.0	38.4	43.5	47.1	42.8	26.6	19.8	38.0	43.5	39.1	39.3	30.1
2017	40.9	43.2	37.7	43.7	47.5	42.9	27.1	19.5	37.7	43.8	39.3	40.2	27.8
2018	40.4	43.0	36.7	42.9	46.8	42.2	27.0	18.7	37.3	43.2	39.7	40.3	31.4
2019	39.8	42.9	35.3	41.9	46.4	41.7	26.2	18.2	36.3	42.1	39.8	38.9	28.1

3. 근속기간

2019년 8월 비정규직의 현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2년 3개월이다. 정규직의 근속기간은 그보다 4배 정도 긴 8년 5개월이다. 이는 비정규직이 저임금 문제뿐 아니라 심각한 고용불안 문제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은 2년 4개월로 고정되어 있다가 2017년과 2018년에는 2년 5개월로 상승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2년 3개월로 다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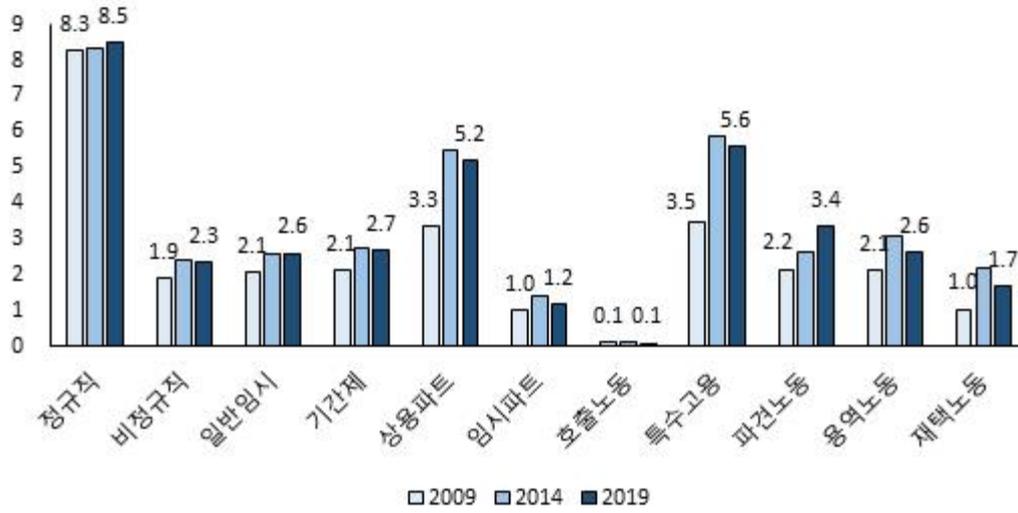
<그림 2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속기간 추이 (단위: 년, 개월)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 중에서는 호출노동의 근속기간이 1개월로 가장 짧다. 임시파트타임(1년 2개월), 재택노동(1년 7개월)은 근속기간이 1년 반 정도에 불과하다. 일반임시직(2년 6개월), 기간제(2년 7개월), 용역노동(2년 6개월)은 2년 반 정도이며, 파견노동(3년 4개월)은 3년 반

정도이다. 상용파트타임은 5년 2개월, 특수고용은 5년 6개월이다.

<그림 23>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근속기간 추이



<표 15>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속기간 (단위: 년, 소수점 이하는 개월)

조사년	임금노동자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단시간		간접고용			특수고용	
		정규직	비정규직	일반임시	기간제	상용파트	임시파트	호출노동	용역노동	파견노동	개인도급	재택노동
2001	-	-	-	-	-	-	-	-	-	-	-	-
2002	4.2	7.3	1.9	2.0	1.8	3.7	1.3	0.0	2.3	1.9	3.0	2.1
2003	4.5	7.8	1.9	2.1	1.9	4.2	1.1	0.1	2.2	2.1	2.8	1.2
2004	4.5	7.8	2.0	2.1	2.2	3.0	1.1	0.2	2.1	2.3	3.2	1.5
2005	4.6	8.1	2.0	2.0	2.1	3.0	1.1	0.2	2.1	2.5	3.4	1.2
2006	4.6	7.9	2.0	2.0	2.3	3.1	1.1	0.3	2.2	2.0	3.0	1.2
2007	4.7	7.9	2.1	2.0	2.6	4.6	1.1	0.2	2.2	2.1	3.0	1.4
2008	4.9	8.1	2.0	2.0	2.4	3.8	1.0	0.2	2.2	2.5	3.4	1.1
2009	5.1	8.3	1.9	2.1	2.1	3.3	1.0	0.1	2.1	2.2	3.5	1.0
2010	5.1	8.1	2.0	2.1	2.1	5.2	1.0	0.1	2.6	2.6	3.9	1.2
2011	5.1	8.0	2.1	2.2	2.6	4.9	1.2	0.2	2.5	3.1	4.2	1.1
2012	5.4	8.2	2.2	2.2	2.8	4.6	1.4	0.2	2.7	2.9	4.7	1.4
2013	5.7	8.3	2.4	2.6	2.9	5.6	1.4	0.1	3.0	3.0	5.1	2.2
2014	5.7	8.4	2.4	2.6	2.7	5.5	1.4	0.1	3.1	2.7	5.9	2.2
2015	5.8	8.4	2.4	2.7	2.7	5.5	1.3	0.2	2.9	2.7	5.5	3.4
2016	5.9	8.6	2.4	2.4	2.8	4.9	1.6	0.1	3.0	3.1	5.9	1.5
2017	6.0	8.5	2.5	2.8	2.8	4.8	1.5	0.1	3.1	3.4	6.1	2.3
2018	6.1	8.7	2.5	2.8	2.9	4.6	1.4	0.1	2.9	3.6	6.3	1.4
2019	6.1	8.5	2.3	2.6	2.7	5.2	1.2	0.1	2.6	3.4	5.6	1.7

4. 사회보험과 부가급부

임금뿐 아니라 사회보험 및 부가급부 적용률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매우 크다. 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국민연금 94.9%, 건강보험 98.8%, 고용보험 84.1%이지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국민연금 33.6%, 건강보험 43.1%, 고용보험 40.1%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가급부 적용률은 정규직이 퇴직금 99.3%, 상여금 92.1%, 시간외수당 66.7%, 유급휴가 88.4%이지만, 비정규직은 퇴직금 38.3%, 상여금 36.1%, 시간외수당 22.1%, 유급휴가 27.1%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및 부가급부 적용률은 개선 속도가 매우 느리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5년 이후 10년 넘게 31~33%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상여금 적용률은 전년 37.0%에서 36.1%로 하락했다. 유급휴가 적용률도 2009년 이후 24%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가 2019년 27.1%로 소폭 증가했다.

비정규직 세부 형태 중에는 호출노동, 개인도급, 임시파트타임, 재택노동, 일반임시직의 사회보험 및 부가급부 적용률이 가장 낮다. 특히 호출노동의 적용률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1% 미만이고, 부가급부에서는 시간외수당 6.7%, 상여금 4.9%, 사회보험에서는 고용보험에서만 5.8%를 나타내고 있다. 개인도급도 거의 대부분 10% 미만이고, 상여금에서만

18.2% 수준을 나타낸다. 임시파트타임의 경우에는 국민연금(11.2%), 퇴직금(10.9%), 유급휴가(5.3%) 적용률이 10% 내외이고, 나머지 항목들의 적용률도 10% 초반 대에 머물러 있다.

〈표 16〉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 비율 (단위: %)

구분	고용형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임금노동자 전체			69.5	75.7	65.8
정규직 여부		정규직	94.9	98.8	84.1
		비정규직	33.6	43.1	40.1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27.2	33.1	33.0
		기간제	63.6	76.5	68.7
	단시간	상용파트	75.9	92.2	80.8
		임시파트	11.2	15.1	16.8
	간접고용	호출노동	0.5	0.4	5.8
		용역노동	38.3	75.2	59.2
		파견노동	58.3	75.6	72.5
	특수고용	개인도급	7.4	9.4	9.5
		재택노동	15.3	18.0	16.1

〈표 17〉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가입 유형별 비율 (단위: %)

구분	고용형태		직장가입	지역가입	미가입
임금노동자 전체			69.5	6.3	24.2
정규직 여부		정규직	94.9	0.6	4.5
		비정규직	33.6	14.4	52.0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27.2	23.1	49.8
		기간제	63.6	6.3	30.1
	단시간	상용파트	75.9	4.4	19.7
		임시파트	11.2	10.0	78.8
	간접고용	호출노동	0.5	31.5	68.0
		용역노동	38.3	5.1	56.6
		파견노동	58.3	5.0	36.6
	특수고용	개인도급	7.4	44.5	48.1
		재택노동	15.3	7.0	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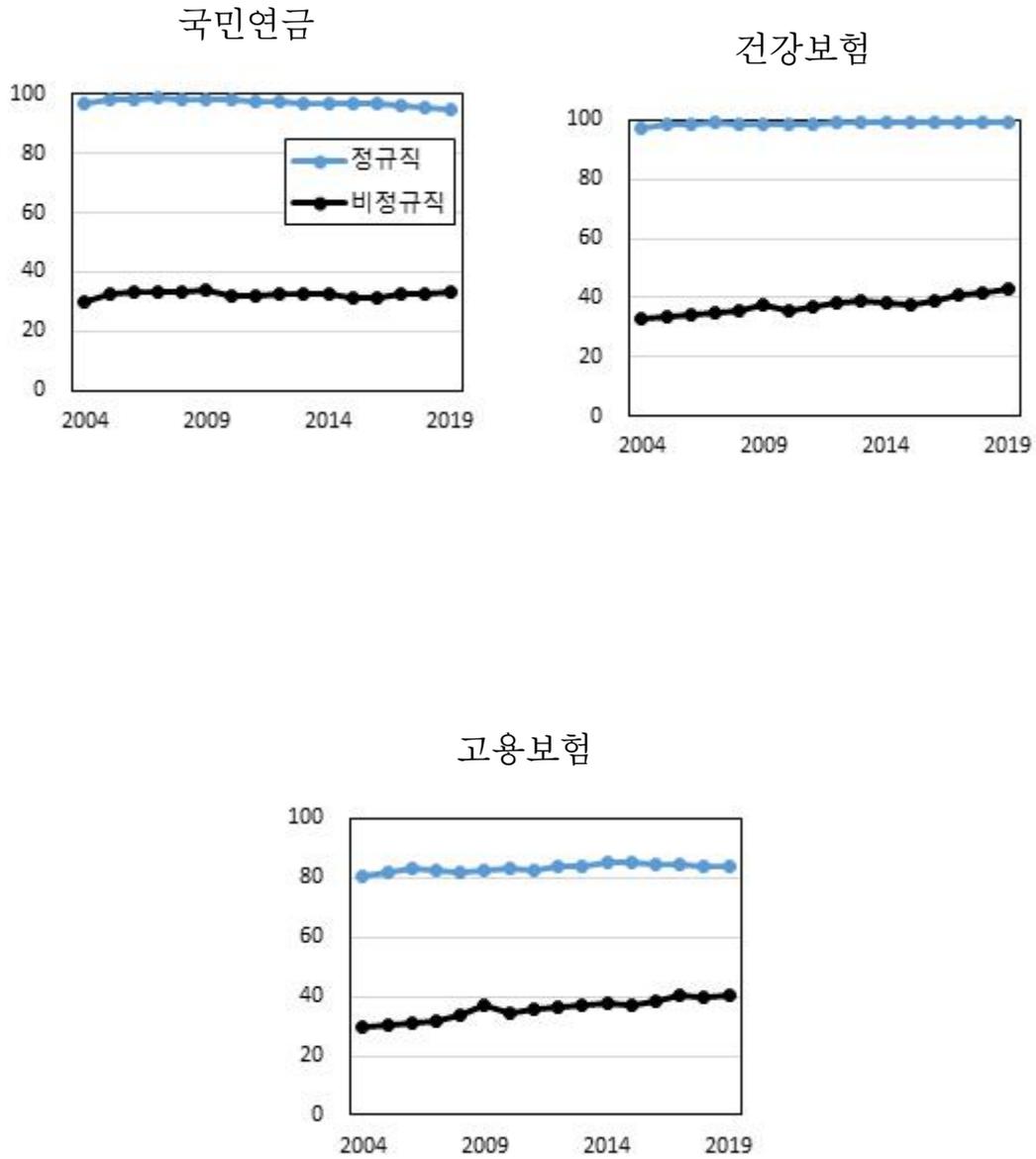
〈표 18〉 고용형태별 건강보험 가입 유형별 비율 (단위: %)

구분	고용형태	직장가입	지역가입	의료수급 권자	직장가입 피부양자	미가입	
임금노동자 전체		75.7	11.8	0.5	10.8	1.2	
정규직 여부	정규직	98.8	0.7	0.0	0.3	0.1	
	비정규직	43.1	27.3	1.2	25.6	2.7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33.1	38.9	0.6	24.7	2.7
		기간제	76.5	12.6	0.6	8.7	1.6
	단시간	상용파트	92.2	3.2	0.7	3.3	0.6
		임시파트	15.1	27.5	2.6	50.6	4.1
	간접고용	호출노동	0.4	55.9	1.6	37.7	4.4
		용역노동	75.2	12.6	0.0	9.9	2.3
		파견노동	75.6	11.1	0.9	11.3	1.2
	특수고용	개인도급	9.4	63.2	1.0	24.5	1.8
		재택노동	18.0	29.4	1.1	42.2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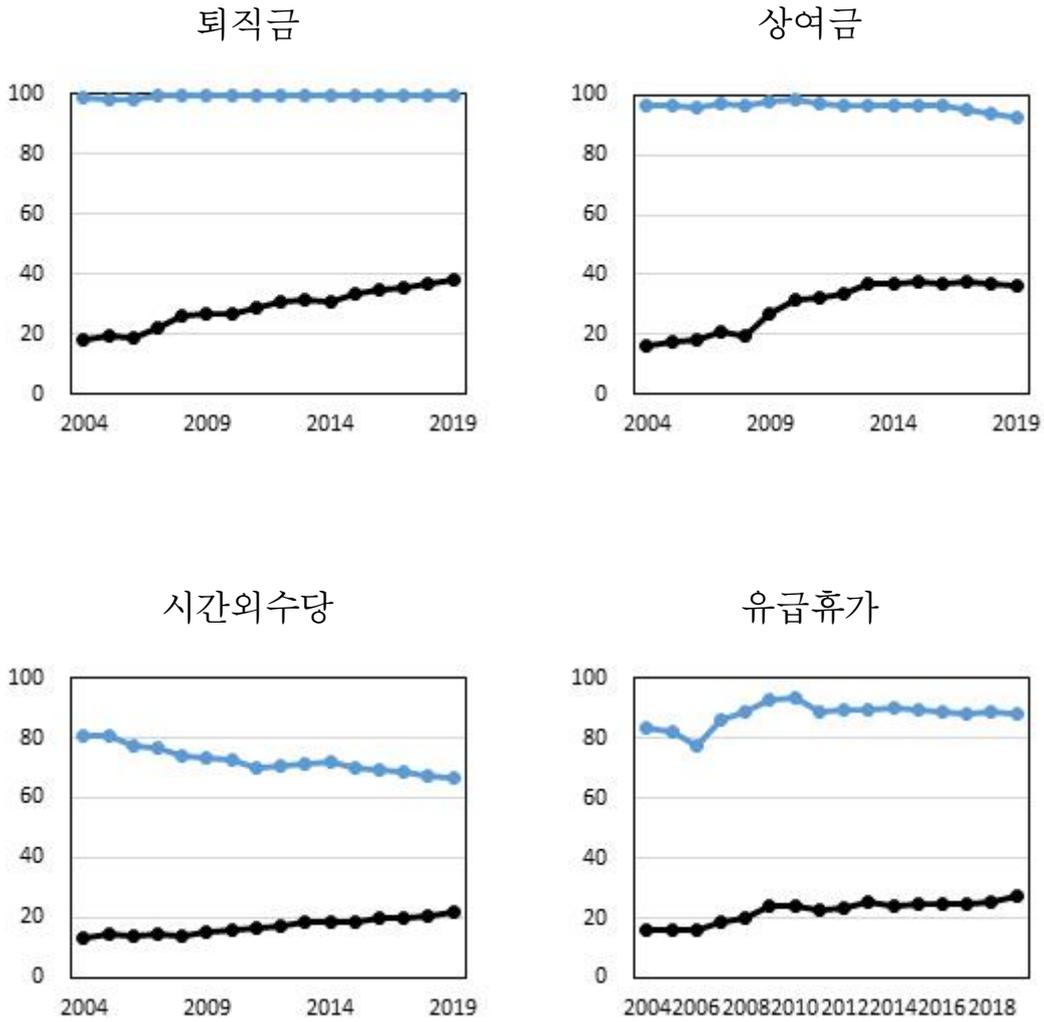
〈표 19〉 고용형태별 부가급부 적용 비율 (단위: %)

구분	고용형태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임금노동자 전체		74.0	68.8	48.2	62.9	
정규직 여부	정규직	99.3	92.1	66.7	88.4	
	비정규직	38.3	36.1	22.1	27.1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31.7	39.0	11.2	11.2
		기간제	66.5	56.4	40.3	57.3
	단시간	상용파트	93.2	81.2	37.4	59.0
		임시파트	10.9	13.6	12.5	5.3
	간접고용	호출노동	0.5	4.9	6.7	0.4
		용역노동	70.5	50.8	31.4	46.5
		파견노동	68.7	53.8	39.4	55.1
	특수고용	개인도급	6.1	18.2	1.6	3.8
		재택노동	16.7	12.3	1.5	9.0

<그림 2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 추이



<그림 2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부가급부 적용률 추이



5. 노동조합 조직률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5%로 정규직 노조 조직률 19.3%에 비해 매우 낮다. 임금노동자 전체 노조 조직률은 12.3%이다. 그런데 유노조 사업장에서 일하고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을 보면, 정규직은 9.0%, 비정규직은 1.8%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낮다. 대신 비정규직은 무노조 사업장 비율(87.3%)과 가입대상이 아닌 비율(8.5%)이 정규직(65.4%와 6.3%)보다 높다. 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 기회를 확대하면 노조 조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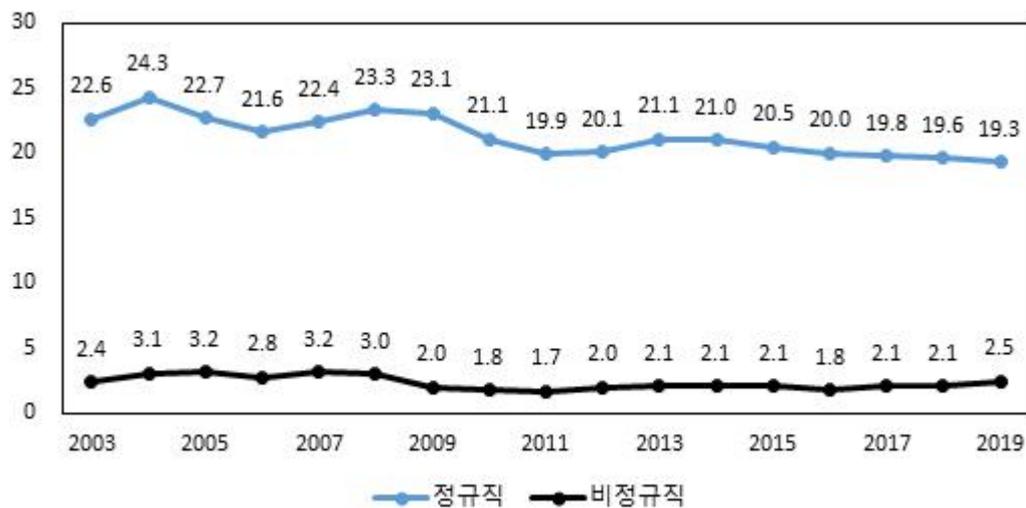
노조 조직률의 장기 추세를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대체로 정체된 모습이다. 2018년과 비교하면 정규직은 19.6%에서 19.3%로 0.3%p 하락했으며, 비정규직은 2.1%에서 2.5%로 0.4%p 증가했다.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 중에서는 호출노동, 개인도급, 재택노동, 일반임시직, 임시파트타임의 노조 조직률이 특히 낮다. 재택노동은 심지어 노조 조직률이 0%로 조사됐으며, 호출노동, 임시파트타임, 개인도급, 일반임시직도 각각 0.2%, 0.3%, 0.6%, 0.9%로 매우 낮다. 반면, 상용파트타임은 7.0%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 이는 고용안정성이 노조가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0〉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단위: %)

구분	고용형태	무노조사업장 (노조없음)	유노조사업장		
			가입대상아 님	미가입	노조가입
임금노동자 전체		74.5	7.2	6.0	12.3
정규직 여부	정규직	65.4	6.3	9.0	19.3
	비정규직	87.3	8.5	1.8	2.5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95.2	3.1	0.8
		기간제	75.7	14.8	4.4
	단시간	상용파트	84.9	5.1	3.0
		임시파트	89.4	10.0	0.3
	간접고용	호출노동	98.8	1.0	0.0
		용역노동	90.8	3.7	1.7
		파견노동	84.8	5.1	3.3
	특수고용	개인도급	93.8	5.4	0.2
		재택노동	96.2	3.6	0.0

〈그림 2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6. 기타 노동조건

2019년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은 정규직이 65.5%, 비정규직이 37.5%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교육·훈련 경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7년부터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비정규직 세부 형태 중에서는 호출노동(11.4%), 재택노동(13.2%), 일반임시직(21.3%), 임시파트타임(31.9%)이 평균 이하인 반면, 개인도급(58.6%)의 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오히려 정규직과 비슷하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정규직이 78.9%, 비정규직이 60.8%이다. 비정규직 세부형태 중에서는 호출노동(11.3%), 재택노동(31.4%), 일반임시직(40.8%)이 특히 낮았다. 반면, 기간제(81.4%), 용역노동(84.2%), 파견노동(82.7%)은 정규직 평균보다도 높았다.

고용형태별 임금형태를 보면, 정규직은 월급제가 69.6%, 연봉제가 27.0%로, 둘을 합친 값이 96.6%에 달한다. 반면, 비정규직은 임금형태가 훨씬 더 다양하다. 월급제가 48.5%로 가장 높기는 하지만, 일급제(17.5%), 시급제(20.3%), 실적급제(8.6%)의 비율도 높고, 연봉제의 비율은 4.5%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비정규직의 임금형태가 다양한 이유는 세부 고용형태별로 주된 임금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임시직, 기간제, 상용파트타임, 파견노동, 용역노동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월급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임시파트타임은 시급제의 비율이 54.3%로 월급제의 비율 32.1%를 상회한다. 호출노동은 일급제의 비율이

86.3%이며, 개인도급과 재택노동은 실적급제의 비율이 각각 99.7%와 47.4%로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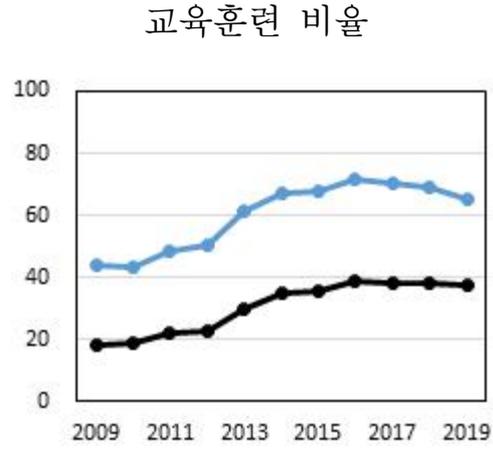
〈표 21〉 고용형태별 교육훈련 경험, 근로계약서 작성비율 (단위: %)

구분	고용형태		교육훈련	근로계약서
임금노동자 전체			53.9	71.4
정규직 여부	정규직		65.5	78.9
	비정규직		37.5	60.8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	21.3	40.8
		기간제	52.0	81.4
	단시간	상용파트	44.5	74.4
		임시파트	31.9	57.2
	간접고용	호출노동	11.4	11.3
		용역노동	42.1	86.0
		파견노동	52.6	82.7
	특수고용	개인도급	58.6	56.5
		재택노동	13.2	31.4

〈표 22〉 고용형태별 임금형태 비율 (단위: %)

구분	고용형태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임금노동자 전체			9.5	7.7	0.3	60.8	17.7	4.0	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1.9	0.7	0.1	69.6	27.0	0.7	0.0
	비정규직		20.3	17.5	0.6	48.5	4.5	8.6	0.1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7.4	14.1	0.7	71.8	0.0	6.0	0.1
		기간제	8.1	13.3	0.6	63.2	13.5	1.3	0.1
	단시간	상용파트	17.1	2.0	0.0	71.6	6.8	2.5	0.0
		임시파트	54.3	10.7	0.8	32.1	0.0	2.0	0.1
	간접고용	호출노동	11.9	86.3	0.3	0.0	0.0	1.5	0.0
		용역노동	12.2	16.5	0.4	68.9	1.6	0.3	0.1
		파견노동	12.4	12.7	0.0	65.6	7.2	2.1	0.0
	특수고용	개인도급	0.0	0.0	0.0	0.3	0.0	99.7	0.0
		재택노동	8.4	8.8	2.1	28.8	2.6	47.4	1.8

<그림 27>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기타 노동조건 추이



부록: 분석개요

통계청에서는 2000년 시범조사를 바탕으로, 2001년부터 매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3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형태 범위와 유형을 둘러싸고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정부 사이의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는 2001년 8월부터 통계청 부가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고용형태 분류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고용형태 규모와 각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조건을 재분석하여 이를 매년 7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통계자료집 형식으로 발간해 왔다. 통계청의 2018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도 지난해까지 사용한 부가조사의 틀과 문항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통계자료집에서도 기존 자료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고용형태 분류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1. 고용형태 분류원칙

고용형태는 2001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정한 원칙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류하고 있다. 고용형태는 총 10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구체적으로 (1) 정규직, (2) 일반임시직, (3) 기간제고용 (4) 상용파트타임, (5) 임시파트타임, (6) 호출노동, (7) 용역노동, (8) 파견노동, (9) 개인도급, (10) 재택노동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고용형태분류 특징은, 분류상 중복될 경우 해당 고용형태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경우를 우선

으로 하여 중복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분류처리순서는 기존 자료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01년 이후의 고용형태분류원칙의 처리순서에 따라, (1) 고용주와의 계약관계, (2) 시간제노동 여부, (3)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여부에 따라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처리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종사상 지위에 해당하는 문항의 답이 ‘상용노동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임시노동자’나 ‘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임시직’으로 기초분류를 하였다. 다음으로 부가조사항목에서 계약기간의 반복갱신 여부를 묻는 문항(문 41)에 응답한 경우 ‘기간제고용’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하였으나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문 45) 항목에서 개인적인 사유(문 45, 문항답 7~9) 또는 직장의 경영상의 이유(문 45, 문항답 10) 및 기타(문 45 문항답 11)가 아닌 다른 임의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답한 경우(부45, 문항답 1~6), 종사상 지위가 ‘상용노동자’ 혹은 ‘일반임시직’에 해당하더라도 ‘기간제고용’으로 재분류하였다(2003년까지의 경우 부가조사 45번 문항답 2~6에 응답한 경우 ‘일반임시직’으로 분류하였으나 업무의 한시적인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판단하여 2004년부터 ‘기간제고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까지 정규직, 일반임시직, 기간제고용을 우선 기본적으로 분류한 상태에서 중복을 제외하기 위하여 1차 분류된 자료를 토대로 재분류를

실시하였다. 시간제 노동 여부를 묻는 문항(부46)에 시간제 노동이라고 답한 경우(문항답 2) 종사상 지위가 ‘상용노동자’ 인 경우는 ‘상용파트타임’ 으로, ‘임시노동자’ 나 ‘일용노동자’ 인 경우는 ‘임시파트타임’ 으로 재분류하였다. 이후 호출노동, 특수고용,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을 문항 순서에 따라 각 고용형태를 추출하였다.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산업 및 직업분류는 9차 개정 분류를 따른다.

2. 용어해설

● 정규직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정의됨.

이번 통계분석에서 ‘정규직’ 은 종사상 지위가 ‘상용노동자’ 에 해당하는 노동자 가운데 일반임시직, 기간제고용, 파트타임, 호출노동, 개인도급,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를 말함.

● 일반임시직

임시직의 정의는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노동이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속노동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로 정의됨. 임시직 중에서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전자를 일반임시직으로 후자를 기간제 고용으로 정의함.

이번 통계분석에서 ‘일반임시직’은 본조사의 종사상 지위가 ‘임시노동자’ 또는 ‘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해당함.

기간제고용, 상용·임시파트타임, 호출노동, 개인도급,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기간제고용

기간제는 종사상 지위여부와 상관없이 임금노동자 중 고용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계약의 반복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됨.

이번 통계분석에서 ‘기간제고용’은 “(노동기간을 정했다면) 현재 계약은 반복·갱신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한 경우의 노동자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없다는 사유(문45)로 1-6번에 응답한 경우가 해당됨.

상용·임시파트타임, 호출노동, 개인도급,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상용파트타임

시간제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노동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소정 노동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노동자로 정의됨.

이번 통계분석에서 ‘상용파트타임’은 종사상 지위가 ‘상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노동자 중에서 시간제로 일한다고 응답한 노동자에 해당함.

기간제, 호출노동, 개인도급,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임시파트타임

이번 통계분석에서 ‘임시파트타임’은 종사상 지위가 ‘임시노동자’ 또는 ‘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노동자 중에서 시간제로 일한다고 응답한 노동자에 해당함.

호출노동, 개인도급,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호출노동

노동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노동자로 정의되며, 통계청에서는 이를 ‘일일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함.

이번 통계분석에서는 ‘호출노동’은 “(노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난주 일자리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개인도급,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개인도급

개인도급은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못하면서, 또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노동제공의 방법, 노동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경우로 정의됨.

이번 통계분석에서 ‘개인도급’은 “지난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되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파견노동

파견노동은 고용업체(임금 또는 급여 지급업체)와 근무하고 있는 업체(직장)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임금(급여)은 원래 소속된 업체(파견업체)에서 받지만 근무는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정의됨.

이번 통계분석에서 ‘파견노동’은 “임금(급여)을 지난주 일한 직장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파견업체”라고 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재택노동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용역노동

용역노동은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임금(급여)을 받고 있으며, 업무상의 지휘 감독도 고용업체의 관리 하에 있으면서,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형태로 정의 됨.

이번 통계분석에서는 “임금(급여)을 지난주 일한 직장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용역업체” 라고 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재택노동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재택노동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정의되며, 대상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집 또는 인근 남의 가정에 모여서 작업하는 경우도 해당됨.

이번 통계분석에서는 “지난주에 주로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가정에서” 라고 응답한 노동자를 말함.